

# 우리나라 근대 회사의 초기 자본금 동향 분석: 수산회사를 중심으로<sup>†</sup>

김진백\*

\*동명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 An Investigation on the Initial Capital Trend of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Fisheries Companies

Jin-Bae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Distribution Management, Tongmyong University, Busan, 48520, Rep. of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itial capital trend of newly-established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viability of the fisheries companies as well as the utilization intensity of fisheries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was larger in the enforcement period of “Chosun Company Ordinance” than in its aboli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the Chosun-capital fisheries company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Japanese-capital fisheries compan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Chosun capital was less than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Japanese capital.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at the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had stronger dominance in the fisheries sector than the Chosun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at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were more viable than Chosun fisheries companies.

Keywords : Initial Capital, Chosun Company Ordinance, Japanese Occupation Period, Viability, Fisheries Company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종으로 한

Received 24 January 2022 / Received in revised form 16 February 2022 / Accepted 18 February 2022

<sup>†</sup>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21A039)

\*Corresponding author : <https://orcid.org/0000-0001-7386-2427>, +82-51-629-1864, [jinkim@tu.ac.kr](mailto:jinkim@tu.ac.kr)

© 2022,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정하고 있다. 근대화 초기에는 조선의 「상법」이 없어서 1912년 공포된 「조선민사령」<sup>1)</sup>에 의해 영리법인의 제활동에 대해 「의용상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1911년부터 회사에 대해서는 「조선회사령」을 통해 회사활동을 규제하였다.

「조선회사령」 제9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모두 회사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여 회사가登記법인임을 분명히 하였다(김두열, 2014). 하지만 「조선회사령」에는 회사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선회사령」에서 미흡한 회사 규정은 「조선민사령」에 의해 「의용상법」을 통해 보완되었다. 「조선회사령」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0년 12월 29일 제령(制令) 제13호로 발표되어 1911년 1월 1일부터 1920년 3월 31일까지 조선 내의 회사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전반기 회사활동은 「의용상법」과 「조선회사령」 2개 법령에 의해 통제되었다.

「의용상법」에 규정된 식민지 초·중기의 회사 유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sup>2)</sup>, 주식회사 등이었으나 1938년 「의용상법」이 개정되면서 유한회사 형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홍제환, 2014, p. 8). 법개정에 따라 유한회사가 수산업종에도 도입되어 1940~41년 사이에 수산물 가공회사인 조선식품(朝鮮食品) 부산공장, 일출수산(日出水産), 울도물산(鬱島物産) 등이 유한회사 형태로 신설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회사 유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 3가지였다.

현재 「상법」에서는 제451조를 통해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자본금 규모는 정의하였지만 그 역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본금의 역할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자본금을 “영리 목적 사업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역할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정상화 시기까지 신설회사의 존립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초기 적자로 인한 경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회사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자본금 규모가 크면 금전적 제약에 따른 수행 불가 사업분야가 축소됨으로 사업의 다양성으로 인한 생존가능성도 더 높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수산회사의 수산 분야 지배력과 생존 가능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용상법」의 자본금 확정 방법이 현재 「상법」과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의용상법」에서는 현재 「상법」의 수권자본제도와 달리 확정자본제도<sup>3)</sup>로 인해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된 주식 액면가액의 총액이 모두 자본금으로 납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홍제환(2014, p. 51)에 따르면, 회사 설립 초기에 정관에 명시된 공칭자본금 중 실제 납입된 자본금 비율은 1927년에는 40% 수준이었으며, 1944년에는 70% 수준이었다. 또한 두 시점 사이에 신설된 회사의 50% 이상이 공칭자본금의 25% 이하만 납입되었다. 이러한 공칭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심각한 차이가 일제강점기 회사제도 하에서는 인정이 되었다.

- 1) 「조선민사령」: 1912년 3월 18일에 공포되어 1912년 4월 1일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기본법규로 이 법령의 시행에 따라 민사 사항은 「조선민사령」이나 기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본의 「민법」, 「상법」 등을 의용(依用)하였음(『두산백과』 참조)
- 2) 합자회사와 같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나 합자회사와의 주요 차이점은 지분을 보다 쉽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성격을 결합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1960년대 「상법」 제정 시 회사 유형에서 제외되었음
- 3) 확정자본제도는 공칭자본금(公稱資本金)의 전액을 회사설립 시에 주식으로 발행하지만 주식금액의 일부 납입을 허용함으로써 나머지 주식금액은 후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이며, 수권자본제도는 회사 정관에 기재된 발행 예정 주식 총수의 일부만을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고 발행주식금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주식은 필요에 따라 추후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

따라서 일제강점기 회사의 초기 자본금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칭자본금 대신에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초기 자본금 변동을 분석해야 한다.

조선 자본가에 의한 회사 설립이 「조선회사령」으로 인해 1910년대 중반기에는 급격히 위축되었다(전우용, 1997). 이는 「조선회사령」이 일본 자본가보다 조선 자본가에 대한 차별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의 국적, 즉 자본국적에 따라서도 초기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 전체 부(wealth)의 규모 변동이 없다면, 설립 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회사당 초기 자본금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에 따라 회사활동 통제 강도의 변화로 인한 신설 회사의 수적 변화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도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일제강점기 신설 수산회사들의 시기별 수적 변화와 초기 자본금의 변동 특성을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와 자본국적을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 기간을 일제강점기로 한정하되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은 「조선회사령」 존재기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근대 수산회사의 종합적 현황 분석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 직전 기간도 연구 대상 기간에 포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수산회사의 선별 기준과 자본국적 분류기준을 먼저 논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조선회사령」 존재기와 자본국적 등에 따른 신설 수산회사의 수적 변화와 초기 자본금의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초기 자본금의 편중성 변동을 「조선회사령」 존재기와 자본국적 기준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 II. 수산회사의 자료 수집 및 분류

### 1. 수산회사의 자료 수집

일제강점기의 회사 관련 자료는 여러 출처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나 자료들마다 작성 목적이 달라서 회사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기록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일제강점기 회사 자료의 대표적 출처로는 『관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경성상의통계연보』, 『조선은행월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상의월보』 등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 출처는 『관보』이다. 「조선총독부관보편찬규정」 제4조에는 『관보』의 ‘광고’란에 상업등기, 기타 각종 등기사항을 등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신설, 해산, 증자, 주주변동 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일차적 자료 출처로 『관보』의 ‘광고’란이 인정되고 있다(김두얼, 2014). 또한 『관보』는 일관된 자료 기재 방식과 관공서의 발간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보』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개인 연구자가 이를 회사자료 출처로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관보』의 경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별 출자금액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식회사는 개인별 출자 기록이 없어 기업의 지배구조, 자본국적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관보』의 회사등기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도 회사 자료 출처로 활용이 가능하나 공칭자본금이 1만 원 이하인 회사는 수록이 누락되었다는 것(김두얼, 2014)이 문제점이다. 주익중(1991)은 1920~30년대의 조선인 회사의 자본변동 연구에 『경성상의월보』의 <조선회사 변동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성상의월보』는 회사 자료 수 측면에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비슷하다(김두열, 2014). 따라서 김두열(2014)은 보다 많은 회사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와 달리 공칭자본금이 1만 원 이하의 회사도 포함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으로 일제강점기의 회사 수 추이를 업종 구분 없이 분석하였다. 박이택(2010)도 일제강점기 회사의 지배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이용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일제강점기 회사자료 출처 중에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주로 이용한 배경에는 수록된 회사 수가 많다는 이유 이외에도 몇가지 이유가 더 있다. 첫째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DB화 되었다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대 말에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DB화 하여 이용 편의성이 높아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둘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회사자료는 내용이 풍부하여 많이 이용된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는 회사명, 회사형태, 업종, 공칭자본금, 납입자본금, 적립금, 회사소재지, 설립연도, 결산일, 존립기한, 중역명단, 주식소유 상황, 대주주명단, 배당률, 대차대조표, 비고 등의 회사관련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비고에는 회사의 연혁, 증자 및 감자, 상호변경, 합병과 매수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박이택, 2010). 비록 일부 자료 항목들이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는 매우 다양한 회사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셋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1921년부터 194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간되어 회사자료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회사의 특성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분석을 하려는 연구자들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회사자료 출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도 누락된 회사가 있으며, 그 누락의 비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전우용(2011)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보다 더 풍부한 자료 출처인 『관보』에 누락된 회사를 찾아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제환(2014, pp. 26~9)은 당시 규정으로 볼 때, 『관보』에 누락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누락이 미미한 정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DB에서 수산회사 자료를 찾은 후 다른 DB를 통해 회사자료를 보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DB에 있는 9,925개 회사자료 중 수산회사로 분류된 215개 자료를 선별하였으며, 이 중에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발행일 이전인 1907~20년 사이에 설립된 10개 회사도 포함되었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서 추출된 수산회사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이용한 자료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sup>4)</sup>이다.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는 28,829개 회사의 자료가 있으며, 회사 설립 일자는 1872~1940년 사이에 속한다. 28,829개 회사 중 수산회사로 분류된 회사는 총 581개이다. 총 581개 회사 중에서 수산업종으로 잘못 분류된 2개 회사를 제외하면 수산회사의 수는 579개이며, 이들도 중복 기록되거나 첫 번째 DB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수산회사와 중복된 회사가 많아 순수하게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서 수산업종으로 분류되어 새로이 추가된 회사 수는 30개이다. 따라서 2개의 DB에서 중복되지 않게 수산업종으로 분류된 회사 수는 총 245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산업종 회사 중에서도 수산회사를 추출하기 위해 자료가 더 많은 ‘한국근현대회

4)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53625/fileData.do>

<표 1> 수산회사 추가 추출 검색 키워드

검색 순서	주제 분야	검색 키워드
1차 검색	수산 일반	· 건어, 굴, 명태, 생어, 선구, 선어, 양식, 어구, 어망, 어묵, 어비, 어유, 염어, 육해물산, 해조, 활어 · 生鮮, 水産, 魚介, 魚類, 漁業, 魚菜, 海陸物(産), 海産
2차 검색	제염	· 소금, 원염, 염 · 官鹽, 食鹽, 再鹽, 製鹽
3차 검색	제빙	· 냉장, 빙괴, 빙설, 얼음, 천연빙 · 製氷

사조합자료’를 대상으로 추가 검색을 하였다. 추가적인 수산회사 추출을 위해 회사명, 회사 내용 자료를 대상으로 <표 1>과 같은 주제 분야별 검색어를 통해 수산회사 후보군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1,937개 수산회사 후보군을 발견하였으며, 개별 회사자료를 세부 검토한 결과, 이들은 비수산업종 회사(179개), 수산업종 회사(524개), 중복 기록 회사(1,234개)로 재분류되었다. 따라서 2개의 DB에서 중복되지 않게 수산업종의 분류 회사 수는 기존의 245개와 추가 추출된 524개 중 이들 두 DB에서 중복된 12개 회사를 제외하여 총 757개이며, 이를 1차 수산회사 DB로 확보하였다. 1차 수산회사 DB에 포함된 수산회사의 설립일 범위는 1907년 4월 2일~1942년 7월 29일이다.

## 2. 자본국적별 수산회사 분류

회사 설립 주체가 조선인 혹은 일본인인지에 따른 자본금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자본의 국적 분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본국적 분류 기준으로 회사관계자의 인적 구성 기준이 많이 이용되었다. 허수열(1989)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기록된 중역 이름을 기준으로 설립자본의 국적을 구분하였으며, 일본 중역의 비중이 30%가 넘지 않으면 모두 조선인 회사로 분류하였다. 주익중(1991)은 『경성상의월보』의 <조선회사변동표>에 있는 대표자명을 기준으로 설립자본의 국적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경성상의월보』의 <조선회사변동표>에는 대표자명만 기록되어 있어 대표자 국적만으로 자본국적을 구분한 주익중(1991)은 허수열(1989)에서 보다 더 대주주의 지분반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선회사변동표>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동일 자료를 더 짧은 기간만 제공하여 자료의 풍부성에도 문제가 있다(김두열, 2014). 박이택(2010)도 일제강점기 조선 기업의 자본 성장률을 조사하기 위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기록된 회사의 인적 자료를 기준으로 자본국적을 구분하였다. 박이택(2010)은 자본국적 구분을 위해 회사 대표의 국적을 1차로 이용하고 이것이 없으면 중역의 국적을 이용하였다. 홍제환(2014)도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기록된 회사 대표의 국적 기준으로 자본국적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지분을 고려한 자본국적의 구분이 선행연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적 자료로 자본국적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추가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자본국적 구분을 위한 인적 자료의 선택 문제이다. 자본국적 구분을 위한 인적 자료 기준으로 주주, 대표자, 중역, 사원 중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회사 지분의 고려 정도에 차이가 발생된다. 예를 들면 대주주가 중역으로 회사에 참여하고 대표자는 전문경영인일 경우, 대표자를 자본국적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자본국적이 잘못 분류된다. 따라서 인적 자료를 자본국적 분류에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회사 지분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주주를 1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선은행

『회사조합요록』에는 일부 회사의 대주주 명부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주주 자료 이외의 인적 자료도 보완적 자본국적 분류기준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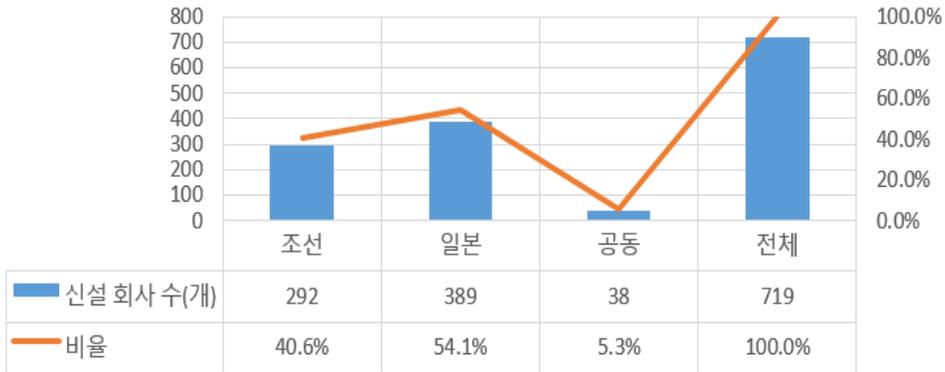
둘째는 자본국적 분류의 대상기간 문제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창씨개명을 시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전반부터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이 일부 있었지만 조선인 전체를 대상으로 창씨개명을 실시한 것은 1940년 2월 11일~8월 1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창씨 신고를 마친 조선의 호적 수는 전체의 80.5%에 해당하는 약 323만 개 호적이며, 인구 수로는 79.6%인 1천 7백 60여만 명에 달한다. 개명 비율은 동년도 10월 31일까지 전체 조선인 수의 1/10도 안 되는 187만여 건이었다(최재성, 2010). 따라서 창씨개명 이후 전체적으로 일본식의 성씨로 바뀐 조선인이 많아 1940~5년 간의 자본국적 분류는 인적 자료의 성명 기준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인적 자료를 이용한 자본국적 분류는 1939년 이전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2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자본국적의 분류 기간을 창씨개명 이전으로 한정하고, 자본국적 분류를 위한 인적 자료 기준은 창업연도의 주주 지분 비율, 임원 및 사원 구성, 회사명 등을 고려하여 자본국적을 구분하였다.

자본국적별 회사 분류유형도 선행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허수열(1989)은 조선인 회사를 조선인 중역만으로 되어 있는 순조선인회사와 조선인 중역이 다수이면서 일본인 중역이 30%를 넘지 않는 조선인 지배회사로 세분하였다. 그는 일본인 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순일본인회사와 일본인지배회사로 일본인 회사를 세분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중역과 일본인 중역이 모두 30% 이상인 경우는 조일 공동회사, 일본인 이외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회사는 외국인회사로 세분하여 총 6개의 자본국적별 회사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명휘(2004)와 홍제환(2014)은 허수열(1989)보다 단순하게 조선인 회사와 일본인 회사로만 구분하였다. 박이택(2010)은 한국인 회사, 일본인 회사, 한국인·일본인 합작회사, 기타로 구분하여 4가지 유형으로 회사를 분류하였다. 그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대표로 있거나, 대표를 알 수 없는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 중역으로 있는 회사를 한국인·일본인 합작회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타 회사 유형에는 외국인 회사, 외국인·한국인 합작회사, 외국인·일본인 합작회사, 외국인·일본인·한국인 합작회사 등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이용되는 주요 자료 출처인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통해서는 100% 주주 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연도의 주주 지분 비율, 임원 및 사원 구성, 회사명 등을 참조하여 자본국적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자본국적별 회사 분류를 참조하여 실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자본국적별 수산회사를 조선자본 회사, 일본자본 회사, 공동자본 회사로 세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선자본 회사와 일본자본 회사는 허수열(1989)의 분류체계에서 보면 순조선인회사와 조선인지배회사를 포괄하는 회사 유형과 순일본인회사와 일본인지배회사를 포괄하는 회사 유형이다. 그리고 공동자본 회사는 조선, 일본 등 특정 국가의 자본 지분이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의 회사 유형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1차 수산회사 DB의 757개 수산회사에 대하여 창씨개명 이전만 고려하여 회사설립 기간을 1907~1939년으로 국한한 결과, 719개(지분관련 자료 없는 회사 1개 제외)의 신설 수산회사가 2차 수산회사 DB로 선별되었다. 719개 신설 수산회사 중에서 조선자본 기업은 292개(40.6%), 일본자본 기업은 389개(54.1%), 공동자본 기업은 38개(5.3%)로 조선자본 회사보다 일본자본 회사가 96개(13.3%) 더 많았다. 따라서 단일국적의 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1> 자본국적별 신설 수산회사 수 분포: 1907~1939년

공동자본 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자본이 조선에 이입될 때 현지국 경제환경에 대한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즉, 대부분의 외국자본은 현지국의 자본과 합작회사 형태의 투자를 통해 현지국의 경제적, 문화적, 법적 차이 등에 기인한 투자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자본가들이 이러한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조선이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 진출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Ⅲ.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 분석

#### 1. 지역별 신설 수산회사의 수와 초기 자본금 차이

1차 수산회사 DB에 포함된 신설 수산회사의 지역별 분포를 본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수산업 활동성에 대한 양적 평가가 가능하다. 본사가 일본지역인 수산회사들과 본사 주소 자료가 누락된 수산회사들을 포함하여 총 15개 지역의 신설 수산회사 분포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수산회사의 신설이 집중된 지역은 경상도, 함경도, 경기도 지역이었다.

<표 2> 신설회사의 지역별 분포: 1907~1942년

순위	지역	빈도(개)	비율	순위	지역	빈도(개)	비율
1	경상남도*	138	18.2%	9	평안남도	29	3.8%
2	함경북도	107	14.1%	10	충청남도	22	2.9%
3	경기도*	97	12.8%	11	일본	16	2.1%
4	함경남도	94	12.4%	12	황해도	15	2.0%
5	경상북도	88	11.6%	13	주소 미확인	14	1.8%
6	전라남도	58	7.7%	14	평안북도	10	1.3%
7	강원도	32	4.2%	15	충청북도	8	1.1%
8	전라북도	29	3.8%	합계		757	100.0%

\* 부산부와 경성부에 본점을 둔 회사 수: 각각 72개(9.5%) 회사와 71개(9.4%) 회사

앞의 자본국적별 신설 수산회사 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자본에 의한 신설 회사 비중이 높음을 고려하면, 수산업 침탈의 주요 대상지역은 서해 및 남서해안보다 동남해안과 동북해안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주요 수산업 침탈 지역이 동남해안과 동북해안 지역이라는 것은 『조선총독부수산통계연보』의 수산물 생산량을 이용한 김수희(2010, p. 251)에서도 밝혀졌다. 1913년 수산물 생산량 비중이 남해안(경남 및 전남) 지역은 48%(78,787 톤), 동해안 지역은 29%(47,256톤), 서해안 지역은 24%(39,749 톤)였다, 1916년 이후에는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의 생산량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하여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1937년에는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동해안 지역이 82%(1,722,980톤), 남해안 지역이 11%(241,075톤), 서해안 지역이 7%(136,755톤)로 나타났다. 또한 1912~32년 간의 통계에서 민족별 어획량은 조선인 어부의 어획량이 많았지만 어획고 금액은 거의 비슷하였다. 이를 일본인 어부의 어획량 중 상당량이 조선에 양륙되지 않고 어장에서 직접 일본으로 운송된 것(김수희, 2010, p. 164)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의 조선어장 침탈은 통계치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설 수산회사 수와 어획량 통계를 기초로 볼 때, 일본의 수산업 침탈 행위가 일제강점기 초기 5년간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동북해안 지역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자본금 규모를 통해 지역별 수산업 활동성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 총자본금 규모의 비교 결과, 본사 위치가 일본지역인 회사가 가장 큰 총자본금 규모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공칭 및 납입자본금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총자본금 규모가 큰 상위 5개 지역 중 함경북도와 경기도는 총 납입/일반 자본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총 공칭/일반 자본금은 경기도가 함경북도보다 훨씬 많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주식회사 자본금 제도는 지금과 달리 확정자본금제였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신설 시점에 발행된 주식의 모든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아 발생하는 괴리

<표 3> 지역별 초기 자본금 비교: 1907~1942년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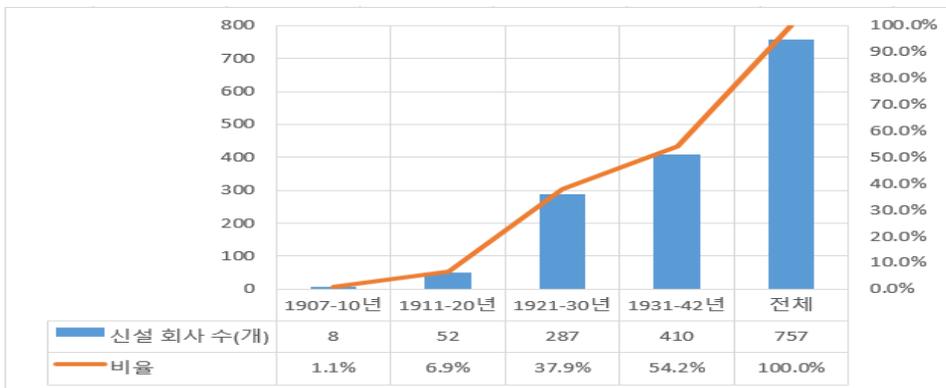
순위	지역	총 초기 납입 /일반 자본금	비율	평균 초기 납입/ 일반 자본금	총 초기 공칭/일반 자본금	비율	평균 초기 공칭/일반 자본금
1	일본	101,923,100	66.8%	6,370,194	127,530,600	56.9%	7,970,663
2	함경북도	13,557,780	8.9%	126,708	16,877,780	7.5%	157,736
3	경기도	12,408,250	8.1%	127,920	27,738,000	12.4%	285,959
4	경상남도	8,059,450	5.3%	58,402	15,863,700	7.1%	114,954
5	경상북도	4,894,325	3.2%	55,617	8,637,350	3.9%	98,152
6	함경남도	3,839,200	2.5%	40,843	6,979,350	3.1%	74,248
7	전라남도	2,176,300	1.4%	37,522	4,334,300	1.9%	74,729
8	강원도	1,548,770	1.0%	48,399	3,364,170	1.5%	105,130
9	주소 미확인	994,692	0.7%	71,049	2,710,000	1.2%	193,571
10	평안남도	799,100	0.5%	27,555	1,984,100	0.9%	68,417
11	전라북도	613,600	0.4%	21,159	1,700,000	0.8%	58,621
12	충청남도	613,250	0.4%	27,875	2,179,500	1.0%	99,068
13	황해도	471,500	0.3%	31,433	1,551,500	0.7%	103,433
14	평안북도	404,000	0.3%	40,400	1,319,000	0.6%	131,900
15	충청북도	341,700	0.2%	42,713	1,241,700	0.6%	155,213
합계		152,645,017	100.0%	201,645	224,011,050	100.0%	295,919

현상이다. 경기도 신설 수산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공칭자본금의 44.7%만 납입이 되어 납입률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따라서 실제 수산업 분야에 투입 자본금을 정확히 반영해서 수산업 활동성의 질적 평가를 하려면 공칭자본금 기준보다는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지역 본사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설 수산회사 중 총 납입/일반 자본금이 많은 5개 지역은 함경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함경남도 등이며, 이들의 총자본금 규모는 전체 대비 28.0%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이들 지역의 수산회사 수 비율인 69.1%보다는 낮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조선의 총자본금 규모 33.2%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동남해안과 동북해안 지역에서의 수산활동이 보다 활발하였음을 질적 기준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 수를 고려해서 회사당 평균 납입/일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와 함경북도의 순위가 바뀌지만 일본을 제외한 상위 4개 지역은 변화가 없다. 단, 함경남도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의 평균 납입/일반 자본금보다 작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자본금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자본력이 큰 수산회사가 서해 및 남서해안보다 동남해안과 동북해안 지역에 많이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지역 본사 회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양적 및 질적 기준으로 수산업 활동성을 본다면, 두 기준에 따른 활동성이 높은 지역이 유사하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수산업 침탈이 우리나라의 우측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초기 자본금 변동

1차 수산회사 DB에 포함된 신설 수산회사의 설립시기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회사 설립의 숫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인 구한말에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각하였으며, 조선인은 회사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1907~10년 사이에 설립된 8개 수산회사의 대주주명과 대표명을 살펴보면 모두 일본자본 회사였다. 1910년 기준으로 조선내 체류 일본인 수는 17만 명이였다. 이 중 어업 종사자 수는 16,500명으로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어선 수는 3,690척이었다(김수희, 2010, p. 17). 따라서 당시 조선 내에 일본(수산)인이 꽤 있었기 때문에 회사제도에 낯선 조선인보다 회사제도를 더 잘 아는 일본인에 의한 회사설립이 먼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시기별 신설회사 수: 1907~39년

또한 1909년 4월 1일 시행된 「어업법」,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어업령」 등으로 일제강점기 초기부터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어업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도 어업권을 받으면 조선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高崎宗司, 2002). 하지만 예상과 달리 1911~20년간에는 수산회사의 신설이 많지 않았다. 즉, 「조선회사령」이 시행된 1911~20년 간에는 수산회사 설립이 52개에 불과하여 회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조선회사령」이 회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회사령」의 폐지 직후 10년간인 1921~30년에는 287개, 그리고 그 다음인 1931년부터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의 발간이 종료된 1942년까지는 410개의 수산회사가 신설되었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에 신설 수산회사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더라도 「조선회사령」이 회사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에 따른 자본투자의 변동성을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본국적별 신설 수산회사의 수와 자본금 규모의 변동성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국적 구분을 위해 설립회사 비교기간을 1911~39년으로 한정하고, 「조선회사령」 시행기(1911.01.01.~1920.03.31.)와 폐지기(1920.04.01.~1939.12.31.)를 기준으로 신설 수산회사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회사령」 시행기에는 33개 회사가 신설되었으며, 폐지기에는 678개 회사가 신설되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자본금 규모 비교를 위해서는 물가지수의 반영 필요성이 있어서 김낙년(2006, pp. 406~407)의 디플레이터를 참조하여 ‘1935년=100’을 물가지수 기준으로 회사당 평균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를 비교하였다. 수산회사의 자본국적별 납입/일반 자본금 비교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기준인 창업연도의 주식 지분 비율, 임원 및 사원 구성, 회사명 등을 고려하여 자본국적을 구분하였다. 기간별 자본국적을 분류한 결과, 「조선회사령」 시행기에 신설된 33개의 수산회사 중에서 일본자본 회사는 24개로 72.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조선자본 회사는 8개로 24.2%를 차지하였으며, 공동자본 회사는 1개만 신설되어 3.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시행기는 조선인보다는 일본인에 의한 수산회사 신설이 더욱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질금액 기준으로 이 기간의 최대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12,149,533원이었으며, 최소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3,460원으로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가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483,730원이었으나 일본자본에 의해 신설된 24개 수산회사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644,261원으로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자본에 의해 신설된 8개 수산회사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62,169원으로 일본자본으로 신설된 회사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의 9.6%에 불과하였다.

<표 4>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1935=100 기준)

「조선회사령」	자본국적별 신설 수산회사 수(개, %)			자본국적별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원)			평균/최대/최소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원)		
	조선	일본	공동	조선	일본	공동	평균 자본금	최대 자본금	최소 자본금
시행기	8 (24.2)	24 (72.7)	1 (3.0)	62,169	644,261	-	483,730	12,149,533	3,460
폐지기	284 (41.9)	358 (52.8)	36 (5.3)	31,227	288,314	80,850	169,475	60,192,616	445
증감	△	△	△	▽	▽	-	▽	△	▽

「조선회사령」 폐지기에는 678개 수산회사가 신설되었다. 이 중에서 일본자본 회사는 358개로 52.8%를 차지하여 과반을 넘었지만 「조선회사령」 시행기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 기간에 신설된 조선자본 회사는 284개로 41.9%를 차지하였으며, 공동자본 회사는 36개로 5.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폐지기에는 일본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조선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 비율은 증가하였다.

자본금 규모 면에서 보면,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최대 및 최소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60,192,616원과 445원으로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었다.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의 최대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약 5배 증가하였으나 최소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약 13% 수준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전체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169,475원으로 시행기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35% 수준으로 축소되어 최대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회사는 폐지기에 신설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자본국적별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현격히 났다. 이 시기의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이 가장 큰 것은 일본자본 회사로 288,314원이었으며, 조선자본 회사는 31,227원, 공동자본 회사는 80,850원이었다. 따라서 조선자본 회사는 「조선회사령」 시행기와 폐지기 모두에서 일본자본 회사보다 초기 자본금 규모가 매우 작았다. 하지만 그 비율 면에서 보면, 「조선회사령」 폐지기에는 조선자본 회사가 일본자본 회사에 비해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비율이 10.8%로 「조선회사령」 시행기의 9.6%보다 1.2% 정도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회사령」 폐지 이후 수산회사 설립이 증가하였으며, 자본국적별 수산회사 수 비율 면에서 보면, 조선자본 회사의 수적 비중이 24.2%에서 41.9%로 증가되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설립초기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의 변동을 「조선회사령」 존폐기로 나누어 비교하면, 시행기에는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이 483,730원이었으나 폐지기에는 169,475원으로 35.0% 수준으로 314,255원만큼 대폭 감소되었다. 「조선회사령」 존폐기의 자본국적별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자본 회사는 「조선회사령」 시행기에는 644,261원이었으나 폐지기에는 288,314원으로 44.8% 수준으로 355,947원만큼 감소되었다. 하지만 조선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은 두 기간 동안에 62,169원에서 31,227원으로 50.2% 수준으로 30,942원만큼 감소되어 일본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가지수를 고려한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기준에서 보면,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에 설립초기 자본금이 하락한 주된 원인이 일본자본 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있으며,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조선자본 회사의 자본금 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회사령」 존폐기 전체에 걸쳐서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일본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보다 작기 때문에 조선인이 설립한 수산회사는 상대적으로 더욱 영세하였다. 회사의 규모는 안정성의 필수조건이다 (Coad, 2009, p. 2). 이는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은 깊은 주머니(deep pocket)의 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재민, 2006, p. 152). 따라서 신설 초기 회사의 폐업률이 매우 높다. 일제강점기에는 지금과 같이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일본자본 회사보다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작아 영세하였다는 것은 설립 이후 일본자본 회사보다 조선자본 회사의 생존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3. 자본국적별 초기 자본금 규모의 차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회사령」 존재기 모두에서 최대 및 최소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자본국적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1910~39년간 신설된 수산회사의 국적별 자본금 규모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본금 구간별 비교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명목금액 및 실질금액 기준 모두에서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가 100만 원을 넘는 조선자본 수산회사는 없다. 하지만 일본자본 수산회사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0개 이상은 존재하여 대규모 자본회사는 모두 일본자본 수산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납입/일반 자본금을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비교해도 명목금액 기준으로 일본자본 수산회사는 46개이나 조선자본 수산회사는 9개로 일본자본 회사 수의 19.6%에 불과하다. 이를 실질금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본자본 수산회사는 45개이나 조선자본 수산회사는 7개로 일본자본 회사 수의 15.7%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되는 자본국적별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를 살펴보면, 일본자본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산회사는 日本水産(株)로 설립 초기의 명목 자본금은 75,000,000원, 실질 자본금 60,192,616원이며, 1925년에 신설된 회사이다. 다음 순으로는 輸出食品(株)로 설립 초기의 명목 자본금은 7,800,000원, 실질 자본금은 12,149,533원으로 1912년에 신설되었으며, 林兼商店(株)는 명목 자본금이 7,500,000원, 실질 자본금이 6,019,262원으로 1924년에 신설되었다(香野展一, 2011). 林兼商店(株)는 1924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조선 내 방어진에 본사를 두었다. 네 번째로 자본금 규모가 큰 朝鮮協同油脂(株)는 명목 자본금이 5,000,000원, 실질 자본금이 4,448,399원으로 1937년 신설되었다. 이들 중 가장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가 큰 3개 회사인 日本水産(株), 輸出食品(株), 林兼商店(株)는 모두 일본에 본점을 두고 조선에는 지점만 둔 회사이다.

조선자본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산회사는 朝鮮産業(株)로 설립 초기의 명목 납입/일반 자본금

<표 5> 초기 자본금 규모별 신설 수산회사 분포: 1910~39년

(단위: 개)

구분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조선자본	일본자본	공동자본	전체
명목 금액	100만 원 이상	0	11	1	12
	50~99만 원	1	9	1	11
	20~49만 원	8	26	2	36
	10~19만 원	16	46	4	66
	5~9만 원	39	40	5	84
	1~4만 원	124	124	22	270
	1만 원 미만	101	122	3	226
	소계	289	378	38	705
실질 금액 (1935년= 100 기준)	100만 원 이상	0	10	0	10
	50~99만 원	1	7	2	10
	20~49만 원	6	28	1	35
	10~19만 원	11	37	3	51
	5~9만 원	29	43	4	76
	1~4만 원	133	120	23	276
	1만 원 미만	109	133	5	247
	소계	289	378	38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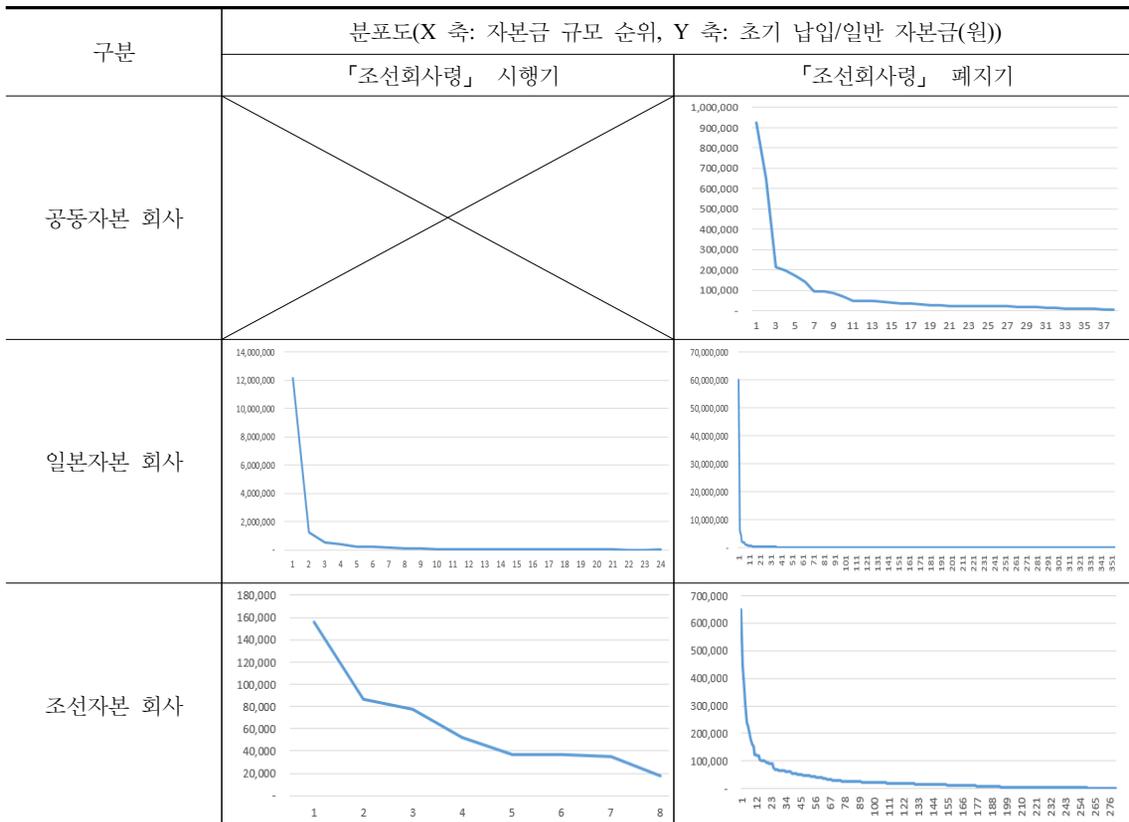
은 750,000원,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648,228원으로 1922년 신설되었다. 그 다음으로 명목 납입/일반 자본 규모가 큰 조선자본 회사는 東富商會(株)로 명목 납입/일반 자본금은 450,000원,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444,225원으로 1929년에 신설되었다. 따라서 두 자본국적 회사 집단에서 상위 납입/일반 자본금 회사에 속하는 수산회사들 간의 비교에서도 일본자본 회사보다도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자본의 대규모 회사들은 모두 「조선회사령」 폐지기에 신설되어 「조선회사령」이 상대적으로 조선인 회사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 편중성 변동 분석

##### 1.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초기 자본 편중성 변동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회사령」 시행기에는 약 10년간 33개의 수산회사만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조선회사령」 폐지기에는 비록 대상 기간이 2배로 늘어났지만 신설 수산회사 수가 672개로 이전의 시행기보다 약 20배 가량 많았다. 따라서 자본국적별 신설 수산회사의 수적 측면에서도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이는 「조선회사령」 시행 여부에 따른 회사활동 환경

<표 6>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분포: 1911~39년



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초기 자본금 규모 분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조선회사령」 존폐기 모두에서 최대 및 최소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폐지기의 초기 자본금 규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조선회사령」 존폐기별로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편중성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 자본금 규모를 크기순으로 도식화 하면 <표 6>과 같다. 초기자본 규모를 디플레이터(1935년=100)로 조정된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공동자본, 일본자본, 조선자본, 전체 회사 모두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분포가 멱함수(power function) 분포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조선회사령」 시행기의 조선자본 수산회사 8개는 회사간의 자본 편중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자본 수산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분포는 「조선회사령」 시행기부터 명확히 멱함수 분포를 나타냈으며, 폐지기에는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

「조선회사령」 존폐기별로 자본국적별 수산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그래프가 멱함수 형태를 보임에 따라 회사간 자본 편중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극단적으로 큰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을 가진 일부 수산회사가 전체 자본금 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멱함수를 따르는 자료들은 순위 값을 이용해서 다음 식 (1)과 같은 비선형 멱함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blacktriangleright \text{순위에 따른 비선형 모형: } F_i = \frac{\alpha}{R_i^\beta}, i = 1, \dots, n; \alpha, \beta > 0. \quad (1)$$

( $F_i$ :  $i$ 번째 순위,  $R_i$ :  $i$ 번째 순위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alpha$ : 상수,  $\beta$ : 지수)

$F_i$ 와  $\alpha$ 는 양의 상수이며, 특히  $\alpha$ 는 가장 큰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에 해당된다(Nitsch, 2005).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자료는 자연로그를 취해서 회귀분석을 한다면 수산회사간의 자본 편중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해서 수식 (1)을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모형으로 변환하였다.

$$\blacktriangleright \ln(F_i) = \ln(\alpha) - \beta \ln(R_i) \quad (2)$$

그리고 실질금액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에 김낙년(2006)의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존폐기에 신설된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을 실질금액(1935=100 기준)으로 환산한 값에 대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편중된 지프 법칙(Zipf law)<sup>5)</sup>의 성립 여부는 회귀계수( $\beta$ )의 절대치 크기가 0.8~1.2 사이에 속하는지를 보고 평가한다(Nitsch, 2005). 회귀계수( $\beta$ )의 절대치가 커질수록 불균등성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중성이 보다 심한 지프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자본금 규모 순위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산회사별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의 자연로그 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계산된 회귀계수( $\beta$ )의 절대치가 시행기에는 0.922였으며, 폐지기에는 0.965였다. 회

5) 많은 종류의 정보들이 멱함수 확률분포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는 경험적 법칙

귀계수( $\beta$ )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 )도 시행기에는 0.845, 폐지기에는 0.932로 나타나 기준치인 0.5보다 모두 더 큰 값을 보였다. 따라서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의 회귀계수 절대치가 더 크게 나타나 신설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 편중성 측면에서도 「조선회사령」 존폐기 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회사령」 시행기에 자본 편중성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1912년 설립된 輸出食品(株)와 1914년 설립된 日本殖産(株)의 초기 자본금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들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각각 12,149,533원과 1,252,236원으로 일제강점기 초기 수산회사로는 대자본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두 초기 대자본 수산회사의 자본금 출처는 모두 일본이었으며, 세부 업종은 수산가공업과 양식업이었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에 자본 편중성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1925년 설립된 日本水産(株)와 1924년 설립된 林兼商店(株)의 초기 자본금이 크기 때문이었다(<표 9> 참조). 이들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

<표 7>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초기 자본 편중성 분포 분석

「조선회사령」	자료 수	절편값	$ \beta $	모형 유의성	$R^2$
시행기	33개	75.311	0.922	0.000	0.849
폐지기	672개	1,525.725	0.965	0.000	0.932

<표 8> 「조선회사령」 시행기의 대자본 수산회사

(단위: 원)

회사명	세부 업종	자본 국적	설립 연도	납입/일반 자본금 (명목 금액)	납입/일반 자본금 (실질 금액)
輸出食品(株)	가공	일본	1912	7,800,000	12,149,533
日本殖産(株)	양식	일본	1914	700,000	1,252,236

<표 9>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대규모 수산회사

(단위: 원)

회사명	세부 업종	자본 국적	설립 연도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명목 금액)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실질 금액)
日本水産(株)	어로	일본	1925	75,000,000	60,192,616
林兼商店(株)	어로	일본	1924	7,500,000	6,019,262
朝鮮協同油脂(株)	가공	일본	1937	5,000,000	4,448,399
日本捕鯨(株)	어로	일본	1934	2,000,000	2,222,222
鐘淵朝鮮水産(株)	가공	일본	1939	3,000,000	1,974,984
日本水産(株)	유통	일본	1920	2,500,000	1,835,536
林兼漁業(株)	어로	일본	1924	1,500,000	1,203,852
清津魚糧工業(株)	가공	일본	1935	1,000,000	1,000,000
朝鮮振興開發(株)	어로	공동	1927	1,000,000	926,784
朝鮮水産開發(株)	어로	일본	1938	1,000,000	827,130
寶水産(合名)	어로	일본	1925	1,000,000	802,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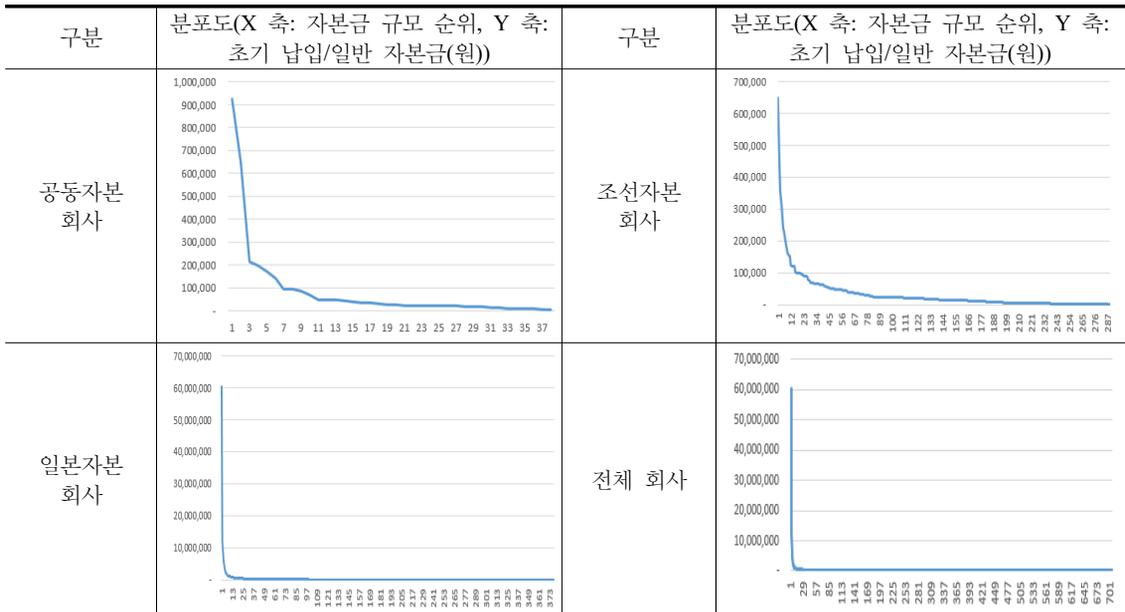
금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각각 60,192,616원과 6,019,262원으로 매우 컸으며, 특히 日本水産(株)은 2위 자본규모의 林兼商店(株)보다도 약 10배 이상 되는 자본 규모였다. 이는 「조선회사령」 시행기의 신설 대규모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보다 더욱 큰 초기 자본금 규모이다. 이로 인해 <표 6>에서 일본자본 회사들 간의 멱함수 그래프 형태가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에 더욱 심화되는 변동이 나타난 것이다. 「조선회사령」 시행기와 마찬가지로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대자본 수산회사의 자본 출처도 대부분이 일본이었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11개 대자본 수산회사 중에서 朝鮮振興開發(株)만이 공동자본 회사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일본자본 회사였다. 이들 11개 회사의 세부 업종은 어로가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산가공업이 3개 회사, 수산물 유통업이 1개 회사였다. 「조선회사령」 폐지기의 대자본 수산회사가 어로업과 수산가공업이 많았던 이유는 부산에서 개최된 1923년 ‘조선수산공진회’와 1928년 ‘조선박용발동기공진회’ 등의 영향으로 조선내 일본 수산회사를 중심으로 어선 동력화가 추진(이기복, 2010)됨에 따라 어선 건조비 증가와 1920년대부터 시작된 정어리 풍어에 따른 은유비(鱈油肥) 가공 증가가 1930년대에 있었던 것(김선웅, 2016)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 2. 자본국적별 초기 자본 편중성 변동 분석

자본국적별 수산회사의 자본 편중 가능성이 <표 5>의 자본규모별 수산회사 분포를 통해 간접 확인되었다. 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초기자본 규모를 디플레이터(1935년=100)로 조정된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크기 순으로 도식화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나타난 공동자본, 일본자본, 조선자본, 전체 회사 모두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분포가 지수함수 형태의 멱함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자본국적별 수산회사의 자본 편중성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표 10> 자본국적별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분포: 1911~39년



따라서 국적별 초기 자본 편중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 순위를 종속변수로 하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본국적별 회귀모형의 회귀계수( $\beta$ )의 절대치가 모두 0.945~0.981로 지프 법칙에 해당되는 자본 편중성을 보였다. 회귀계수( $\beta$ )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 )는 모두 기준치인 0.5 이상으로 나타나 자본 편중성 분석 모형에 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자본 편중이 심한 것은 조선자본 회사의 경우로, 회귀계수( $\beta$ )의 절대치가 0.98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선자본 회사가 일본자본 회사보다 평균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규모는 작지만 조선자본 회사들 간의 초기 자본금 규모의 상대적 차이는 더욱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본 편중성이 낮은 수산회사 집단은 공동자본 회사로 회귀계수( $\beta$ )의 절대치가 0.945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1911~39년에 신설된 전체 수산회사들 간의 자본 편중성이 있음도 회귀계수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자본국적별 수산회사 집단 간에도 자본 편중성의 차이, 즉 변동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자본 회사의 경우, 378개 수산회사 중에서 12개 회사가 명목 자본금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이

<표 11> 자본국적별 자본 편중성 분석

회귀모형	자료 수	절편값	$ \beta $	모형 유의성	$R^2$
공동자본 회사	38개	109.945	0.945	0.000	0.894
일본자본 회사	378개	804.688	0.964	0.000	0.930
조선자본 회사	289개	747.115	0.981	0.000	0.963
전체 회사	705개	1,588.894	0.963	0.000	0.927

<표 12> 대규모 일본자본 회사

(단위: 원)

회사명	본사	세부 업종	설립 연도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명목 금액)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실질 금액)
日本水産(株)*	일본 東京市 芝區	어로	1925	75,000,000	60,192,616
輸出食品(株)	일본 東京市	가공	1912	7,800,000	12,149,533
林兼商店(株)	일본 下關市	어로	1924	7,500,000	6,019,262
朝鮮協同油脂(株)	경기도 경성부	가공	1937	5,000,000	4,448,399
日本捕鯨(株)	일본 東京市	어로	1934	2,000,000	2,222,222
鐘淵朝鮮水産(株)	함북 청진부	가공	1939	3,000,000	1,974,984
日本水産(株)*	일본 東京市 麴町區	유통	1920	2,500,000	1,835,536
日本殖産(株)	일본 岡山縣	양식	1914	700,000	1,252,236
林兼漁業(株)	경남 울산군	어로	1924	1,500,000	1,203,852
淸津魚糧工業(株)	함북 청진부	가공	1935	1,000,000	1,000,000
朝鮮水産開發(株)	경기도 경성부	어로	1938	1,000,000	827,130
寶水産(合名)	경북 대구부	어로	1925	1,000,000	802,568

\* 日本水産(株)는 본사 위치가 다른 2개 회사가 있음

<표 13> 대규모 공동자본 회사

(단위: 원)

회사명	세부 업종	설립연도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명목 금액)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실질 금액)
朝鮮振興開發(株)	어로	1927	1,000,000	926,784
北鮮産業(株)	어로	1922	750,000	648,228

되는 대자본 회사라서 자본 편중성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다. <표 12>에 나타난 12개 대자본 일본회사 중에서도 日本水産(株)과 輸出食品(株)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이 각각 60,192,616원과 12,149,533원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일본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309,998원보다 월등히 큰 대자본 회사이다. 또한 林兼商店(株)과 林兼漁業(株)은 中部幾次郎이라는 일본 수산업자가 설립한 회사로 모두 상위권에 속하는 대자본 수산회사였다. 12개 대자본 일본 수산회사를 세부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어로 업종회사가 6개, 가공 업종회사가 4개, 양식과 유통 업종회사가 각각 1개였다. 그리고 이들 중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는 6개(50%)였으며, 가장 자본금 규모가 큰 3개 회사인 日本水産(株), 輸出食品(株), 林兼商店(株)는 모두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였다. 1907년부터 1942년까지 설립된 수산회사 757개 중에서 일본에 본사를 둔 수산회사는 총 16개 회사로, 이들의 평균 명목 납입/일반 자본금은 6,370,194원이며,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은 5,756,723원으로 일본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309,998원보다 약 29배 더 큰 자본금 규모이다. 일본에 본사를 둔 총 16개 회사를 산업 구성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은 9개(어로: 8개, 양식: 1개), 2차 산업은 4개(가공: 3개, 제염: 1개), 3차 산업은 3개(유통: 3개)이다(부록 1 참조).

이러한 자본 편중성이 나타난 원인은 동일 집단내 회사간 자본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공동자본 회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朝鮮振興開發(株)와 北鮮産業(株)의 자본금 규모가 크다. 실질금액 기준으로 이들 두 회사의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은 각각 926,784원과 648,228원으로 38개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86,556원보다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최소 자본금 회사인 法聖浦水産(株)의

<표 14> 대규모 조선자본 회사

(단위: 원)

회사명	세부 업종	설립연도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명목 금액)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 (실질 금액)
朝鮮産業(株)	어로	1922	750,000	648,228
東富商會(株)	유통	1929	450,000	444,225

<표 15> 전체 대규모 자본 회사

(단위: 원)

회사명	세부 업종	자본국적	설립연도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명목 금액)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실질 금액)
日本水産(株)	어로	일본	1925	75,000,000	60,192,616
輸出食品(株)	가공	일본	1912	7,800,000	12,149,533
林兼商店(株)	어로	일본	1924	7,500,000	6,019,262
朝鮮協同油脂(株)	가공	일본	1937	5,000,000	4,448,399
日本捕鯨(株)	어로	일본	1934	2,000,000	2,222,222
鐘淵朝鮮水産(株)	가공	일본	1939	3,000,000	1,974,984
日本水産(株)	유통	일본	1920	2,500,000	1,835,536
日本殖産(株)	양식	일본	1914	700,000	1,252,236
林兼漁業(株)	어로	일본	1924	1,500,000	1,203,852
清津魚糧工業(株)	가공	일본	1935	1,000,000	1,000,000
朝鮮振興開發(株)	어로	공동	1927	1,000,000	926,784
朝鮮水産開發(株)	어로	일본	1938	1,000,000	827,130
寶水産(合名)	어로	일본	1925	1,000,000	802,568

\* 朝鮮振興開發(株)만 공동자본 회사, 나머지는 모두 일본자본 회사

실질금액 기준 납입/일반 자본금 3,460원과 비교하면 더욱 현격한 차이가 있다.

조선자본 회사 289개 중에서 자본금이 큰 수산회사는 朝鮮産業(株)와 東富商會(株)로 실질금액 기준으로 초기 납입/일반 자본금이 각각 648,228원과 444,225원이다. 이는 공동자본 회사의 최대 초기 자본금보다 작은 금액이다. 289개 조선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은 32,981원으로, 일본 자본 회사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309,998원의 약 10% 정도이며, 공동자본 회사의 86,556원보다도 작았다. 비록 조선자본 수산회사의 경우 자본규모는 작았지만 자본 편중성은 다른 자본국적의 수산회사 집단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국적별 자본편중 현상으로 인해 705개 수산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수산회사 대상의 분석에서도 자본 편중성이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일본의 대자본 수산회사에 있으며, 상위 13개의 대자본 수산회사 중에서 공동자본 회사는 朝鮮振興開發(株) 1개만 있었다. 705개 회사의 전체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은 184,397원으로, 일본자본의 영향을 받아 공동자본 회사와 조선자본 회사의 평균보다는 큰 자본규모였다.

## V. 결 론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점을 개항으로 본다면, 1876년부터 조선은 세계열강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체적 산업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東道西器論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은 회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1883년 6월에 설립된 ‘大同商會’를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첫 회사라고 하지만 「상법」 관점에서의 영리법인으로서 회사가 처음 설립된 시기는 1910년대로 알려져 있다(김두열, 2014). 일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조선회사령」을 통해 회사 설립 및 운영 등의 제활동에 제약을 가하였으며, 특히 조선인들의 회사 설립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전우용, 1997). 이는 당시 조선인 회사들이 가진 도고권(都賈權)을 철폐하기 위해 조선인 회사에 대해 「조선회사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회사령」을 통해 조선에 회사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조선인에 의한 회사 설립은 제약이 많아 「조선회사령」 시행기와 폐지기의 회사 설립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정의 근거를 밝히기 위해 「조선회사령」 존폐기별 수산회사의 설립 및 초기 자본 규모 등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간접적 목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수산업의 주도권 혹은 지배력이 조선인 혹은 일본인 어느 측에 있었는지와 자본국적별 회사의 생존가능성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선회사령」 시행기 동안에는 33개의 수산회사가 신설되었으며, 그 중 일본 자본 회사가 24개로 72.7%를 차지하였고, 폐지기 동안에는 678개 수산회사가 신설되었으며, 그 중 일본자본 회사가 358개로 52.8%를 차지하였다.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의 신설 수산회사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은 「조선회사령」이 회사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회사령」 폐지기에 조선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의 비중이 시행기보다 증가하였다는 것은 「조선회사령」의 부정적 영향이 일본인보다는 조선인에게 더 많이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국적별 초기 자본 규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선회사령」 존폐기 양 기간에 걸쳐서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일본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금보다 작았기 때문에 조선인이 설립한 수산

회사는 상대적으로 더욱 영세하였다. 즉, 일본자본 회사는 「조선회사령」 시행기와 폐지기의 평균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이 각각 644,261원과 288,314원이었으나 조선자본 회사는 동기간에 각각 62,169원과 31,227원으로 일본자본의 10% 전후 규모였다. 비록 「조선회사령」 시행기에 비해 폐지기의 평균 초기 자본금 축소 금액이 일본자본 회사 집단보다 조선자본 회사 집단에서 더 작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조선자본 회사의 초기 자본규모와 회사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수산업 분야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인 수산회사보다 일본인 수산회사의 생존가능성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 수산업의 지배 집단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자본 편중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대자본 회사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지프 분석을 하였으며, 지프 법칙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와 회사 수가 일본인 회사 집단이 조선인 회사 집단보다 크고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조선 수산업의 지배 집단은 대부분 일본자본 수산회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자본 수산회사 집단의 지프 법칙 성립을 결정하는 지수가 일본자본 수산회사보다 조금 크지만 전체 수산회사를 대상으로 보면, 조선자본 수산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수가 작기 때문에 전체 수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일본자본 수산회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평균 초기 자본금 규모 및 회사 수뿐만 아니라 자본 편중성에 대한 지프 법칙의 성립을 통해서도 조선의 수산업에 대한 지배력은 일본 수산회사 측이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조선 수산업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 배경을 밝히는 향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의 주요 수산회사를 조사하고, 이들의 활동 영역, 즉 세부 업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주요 수산회사는 매출액 혹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이 주요 영향을 미친 세부 수산업 업종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산업종에 대한 분류체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이들을 토대로 현재 수산업의 주요 세부업종과의 비교를 통해 1세기 동안 수산업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김낙년(2006),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두열(2014), “식민지 조선의 회사 수”, 경제사학, 56, 153-176.
- 김선웅(2016), “1930년대 조선인 중소공업의 수직적 분업구조와 식민지적 특징 - 제사업(製絲業)과 온유비(鱸油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4, 441-479.
- 김수희(2010),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 박이택(2010), “식민지 조선에 있어 회사 자본금의 성장률에 대한 통계적 고찰”, 한국학연구, 35, 303-327.
- 박재민(2006), 생존분석 - 이론과 실제 -, 신광출판사.
- 이기복(2010), “일제하 어선동력화 추이와 조선의 수산업 - 1920년대 수산공진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2, 195-228.
- 이명휘(2004), “우리나라 주식회사제도의 정착과 성장, 1905-1944”, 여성경제연구, 1(1), 47-73.
- 전우용(1997), “1910년대 객주 통제와 ‘朝鮮會社’”, 역사문제연구, 2, 103-147.
- \_\_\_\_\_(2011),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주익중(1991), “일제하 조선인 회사자본의 동향”, 경제사학, 15, 31-66.
- 최재성(2010),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345-392.

- 코노 노부카즈(香野展一)(2011), “일제하 中部幾次郎의 林兼商店 경영과 ‘水産財閥’로의 성장”, 東方學志, 153, 277-328.
- 허수열(1989), 일제하 조선인회사 및 조선인중역의 분석,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354-387.
- 홍계환(2014), 한국 근대의 회사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6-29.
- 高崎宗司(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 東京: 岩波新書.
- Coad, A. (2009), *The Growth of Firms - A Survey of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Edward Elgar.
- Nitsch, V. (2005), “Zipf zipped”, *Journal of Urban Economics*, 57(1), 86-100.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53625/fileData.do>.

<부록 1> 일본 본사 수산회사 리스트

(단위: 원)

회사명	세부업종	명목 납입/일반 자본금	실질 납입/일반 자본금	설립일	GDP 디플레이 터	공칭/일반 자본금	본점 주소
東洋捕鯨(株)	어로	3,750,000	-	1909-05-02	-	6,000,000	大阪市 西區 川口町 142
輸出食品(株)	가공	7,800,000	12,149,533	1912-05-05	64.2	7,800,000	東京市 日本橋區 本町 1丁目 13
日本殖産(株)	양식	700,000	1,252,236	1914-05-30	55.9	1,000,000	岡山縣 兒島郡 八濱町 大字八濱 983
珍島殖産(株)	어로	212,500	210,396	1918-04-30	101.0	200,000	熊本縣 下益城郡 隈庄町 下宮地
青島洋行(株)	제염	230,000	159,170	1919-02-17	144.5	500,000	長岡市 表一ノ町 86
日本水産(株)	유통	2,500,000	1,835,536	1920-08-23	136.2	2,500,000	東京市 麴町區 丸ノ内 2丁目 2-1
平戸水産相互(株)	가공	150,000	129,646	1922-10-10	115.7	200,000	長崎縣 北松浦郡 平戸町 大字平戸岩ノ上兔 1506
林兼商店(株)	어로	7,500,000	6,019,262	1924-09-01	124.6	10,000,000	下關市 竹崎町 66
鳥居商店(合名)	유통	90,000	72,231	1925-09-01	124.6	90,000	下關市 大字岬之町 7
日本水産(株)	어로	75,000,000	60,192,616	1925-11-01	124.6	95,100,000	東京市 芝區 田村町 1丁目 2
加藤罐詰製造所(合資)	가공	15,600	13,553	1926-06-25	115.1	15,600	廣島市 吉島町 31
朝鮮振興開發(株)	어로	1,000,000	926,784	1927-04-11	107.9	1,000,000	東京市 淀橋區 百人町 3丁目 39
旭水産(株)	어로	375,000	370,188	1929-06-01	101.3	500,000	東京市 麴町區 丸-内 2丁目 12
那須商店(株)	유통	500,000	657,030	1930-06-10	76.1	500,000	下關市 竹岐町 84
東讚漁業(株)	어로	100,000	140,449	1931-04-12	71.2	125,000	香川縣 大川郡 津田町 3678-イ
日本捕鯨(株)	어로	2,000,000	2,222,222	1934-05-07	90.0	2,000,000	東京市 麴町區 丸ノ内 2丁目 12
평균		6,370,194	5,756,723			7,970,663	

<부록 2> 수산회사 리스트: 757개

(설립 기간: 1907.04.02.~1942.07.29.)

연번	회사명	세부업종	일반/납입 자본금 (명목 금액, 원)	자본국적	설립일	본사 위치
1	加藤罐詰製造所(合資)	가공	15,600	일본	1926-06-25	일본
2	加藤商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32-08-25	경상북도
3	加藤兄弟商會(合資)	유통	6,000	일본	1926-09-01	전라북도
4	加平商會(株)	유통	10,000	조선	1930-01-17	경기도
5	杆鹽(株)	유통	25,000	조선	1923-04-19	강원도
6	葛摩漁業(株)	어로	37,500	일본	1937-02-01	함경북도
7	甘浦鱸產業(株)	가공	250,000	일본	1937-03-31	경상북도
8	江景水産(株)	유통	12,500	일본	1919-08-05	충청남도
9	江景魚菜市場(株)	유통	25,000	조선	1937-03-07	충청남도
10	江口商店(合資)	유통	100,000	일본	1929-12-05	평안남도
11	江陵産業(株)	어로	25,000	조선	1936-03-15	강원도
12	江陵合同水産(株)	어로	124,625	조선	1938-01-20	강원도
13	岡野商店(合資)	유통	25,000	일본	1922-03-25	경상북도
14	江原食品(株)	가공	10,000	일본	1931-09-05	경상남도
15	開城(合名)	유통	1,000	조선	1930-06-08	황해도
16	開城魚菜(合資)	유통	5,000	일본	1934-09-20	황해도
17	開濟商事(合名)	유통	50,000	일본	1919-11-03	전라남도
18	巨文島製氷(株)	제빙	50,000	일본	1930-05-11	전라남도
19	犬島商會(合資)	유통	11,000	일본	1929-08-02	경기도
20	兼吉商店(合名)	유통	1,000	일본	1927-04-20	경기도
21	京江物産(株)	유통	50,000	조선	1931-08-08	경기도
22	京江物産(合名)	유통	20,000	조선	1933-03-08	강원도
23	慶南漁業信託(合資)	어로	5,000	일본	1927-08-16	경상남도
24	慶北水産(株)	유통	62,500	공동	1931-09-15	경상북도
25	慶北漁業(株)	어로	150,000	공동	1927-11-02	경상북도
26	慶北合同罐詰(株)	가공	62,500	일본	1937-03-01	경상북도
27	慶尙物産(株)	유통	25,000	조선	1934-01-25	경상북도
28	京城冷藏庫(合名)	물류	30,000	일본	1925-11-28	경기도
29	京城水産(株)	가공	465,000	일본	1927-12-25	경기도
30	京城食糧品市場(合名)	유통	12,000	일본	1912-07-10	경기도
31	京城食料品(株)	유통	125,000	조선	1936-09-01	경기도
32	京城日丸水産(株)	유통	40,000	일본	1913-02-07	
33	京城天然氷(株)	제빙	77,500	일본	1921-10-29	
34	慶州物産(合資)	유통	16,000	조선	1937-05-22	경상북도
35	慶州興業(株)	유통	75,000	조선	1937-09-08	경상북도
36	慶興殖産(合資)	물류	200,000	일본	1930-05-26	함경북도
37	鷄林興産(株)	유통	25,000	조선	1922-07-22	
38	桂園産業(株)	유통	250,000	조선	1936-05-01	황해도
39	高崎(合名)	유통	350,000	일본	1931-04-29	경상북도
40	高麗國際貿易(合資)	유통	86,000	조선	1931-10-15	경기도
41	高麗洋行(合名)	유통	10,000	조선	1932-01-10	경기도
42	高務商會(合名)	유통	20,000	조선	1936-02-01	평안북도
43	高濱商店(合資)	어로	10,000	일본	1921-11-03	함경남도
44	高山運送合同(株)	물류	5,000	조선	1929-04-01	함경남도
45	高城商會(株)	유통	12,000	조선	1923-10-28	강원도
46	庫底製氷冷藏所(合資)	제빙	200,000	일본	1934-05-20	강원도
47	高田漁業部(合資)	어로	5,000	일본	1929-01-08	경상남도

48	高妻商店(合資)	유통	8,500	일본	1930-10-15	경상남도
49	共同水産(株)	유통	195,600	일본	1941-01-31	함경북도
50	共同漁業(株)	어로	50,000	일본	1922-07-02	경상남도
51	共同運送(株)	물류	3,750	조선	1928-03-01	함경남도
52	共立水産(株)	가공	75,000	일본	1937-08-12	함경북도
53	共立倉庫物産(株)	물류	250,000	일본	1920-09-30	충청남도
54	共信(株)	유통	100,000	조선	1935-07-11	함경남도
55	共信社(合資)	유통	10,000	조선	1929-03-14	함경남도
56	共信商會(合資)	유통	3,200	조선	1930-01-21	함경남도
57	共信商會(合資)	가공	20,000	공동	1934-03-18	함경북도
58	共信種苗園(合資)	유통	2,000	조선	1934-10-01	평안남도
59	共信株式會社	유통	100,000	조선	1935-07-11	함경남도
60	共榮氷社(合資)	제빙	5,000	일본	1933-05-30	충청남도
61	共榮社(株)	유통	50,000	조선	1924-09-07	충청남도
62	共榮社(合資)	유통	5,000	조선	1936-11-11	전라북도
63	共永漁業(株)	어로	8,750	조선	1938-08-24	경상북도
64	共榮運輸(株)	유통	4,125	조선	1938-01-09	강원도
65	共榮運輸(合資)	유통	6,000	조선	1935-03-19	평안북도
66	公海興産(株)	가공	100,000	일본	1928-01-15	함경북도
67	共和商會(合資)	유통	8,000	일본	1934-05-31	평안남도
68	關東商會(株)	유통	25,000	조선	1925-06-10	경상남도
69	官鹽販賣(合資)	유통	10,000	조선	1929-03-25	경상남도
70	光成水産工業所(合資)	어로	5,000	일본	1935-03-08	경상북도
71	光成泰(株)	유통	25,000	조선	1931-06-02	경기도
72	光州物産(合資)	제빙	30,000	일본	1934-11-14	전라남도
73	光州水産(株)	유통	3,750	일본	1929-03-07	전라남도
74	光州魚菜(合資)	유통	10,000	일본	1928-02-23	전라남도
75	光州製氷(株)	제빙	25,000	일본	1936-08-25	전라남도
76	九登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29-03-07	경상남도
77	九龍浦油肥製造(株)	가공	50,000	일본	1936-04-24	경상북도
78	久保商會(合資)	가공	2,500	일본	1929-05-15	황해도
79	九川販賣場(合資)	유통	20,000	조선	1927-09-27	경기도
80	群山國逸商會(合資)	유통	1,500	조선	1936-01-14	전라북도
81	群山鹽業(合名)	유통	4,000	일본	1930-03-21	전라북도
82	群山海陸物産(合資)	유통	3,000	일본	1929-11-21	전라북도
83	群山丸魚運送(株)	유통	6,250	조선	1939-07-16	전라북도
84	群一商會(合資)	유통	1,000	조선	1936-05-01	전라북도
85	堀内商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29-01-29	전라북도
86	宮本(合名)	유통	1,000	일본	1933-01-28	경상북도
87	宮本商店(合資)	제염	8,000	조선	1931-03-01	평안남도
88	近藤商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29-04-17	전라남도
89	今木商店(合資)	유통	10,000	일본	1928-11-11	함경북도
90	今西商店(合名)	유통	17,500	일본	1928-08-01	전라남도
91	今城水産工業(株)	가공	150,000	일본	1938-04-15	경상남도
92	岐西勸農(株)	유통	25,000	조선	1927-03-01	황해도
93	吉崎商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30-04-01	경상남도
94	吉川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30-11-01	충청북도
95	金は林商店(合資)	유통	3,000	조선	1935-02-15	함경남도
96	金基淳商店(合資)	유통	3,500	조선	1933-09-05	경상남도
97	金東商店(合資)	유통	30,000	조선	1929-08-05	경상북도
98	金山商會(合資)	가공	30,000	조선	1940-04-09	함경북도

99	金山組(合資)	어로	8,000	조선	1939-04-15	강원도
100	金聖昌商店(合資)	유통	2,000	조선	1938-04-01	충청남도
101	金在洙商店(合名)	유통	100,000	조선	1936-09-30	함경북도
102	金宗元商店(合資)	어로	2,500	조선	1932-08-14	경상남도
103	金昌商會(合資)	유통	18,000	조선	1933-12-01	함경북도
104	金昌製鹽所(合資)	제염	3,000	조선	1932-08-10	평안남도
105	金泉魚菜(株)	유통	6,250	일본	1923-06-27	경상북도
106	金泉興業社(株)	유통	166,192	일본	1919-01-11	
107	金七商會(合資)	유통	50,000	공동	1927-01-18	함경남도
108	金化商事(株)	유통	25,000	조선	1933-11-01	경기도
109	那須商店(株)	유통	500,000	일본	1930-06-10	일본
110	南鮮貿易(株)	유통	112,500	조선	1919-08-25	전라남도
111	南鮮物産商會(合名)	유통	3,000	조선	1935-02-18	경상북도
112	南鮮産業(株)	유통	50,000	조선	1930-02-05	경기도
113	南鮮商工(株)	유통	25,000	조선	1928-09-07	전라남도
114	南鮮商事(株)	유통	12,500	조선	1935-04-14	전라남도
115	南鮮商事(株)	유통	125,000	조선	1936-02-15	충청북도
116	南鮮商事信託(株)	유통	10,000	일본	1908-02-10	충청남도
117	南鮮商業(株)	유통	75,000	조선	1938-03-20	전라북도
118	南鮮水産(株)	어로	250,000	일본	1938-04-27	경상남도
119	南鮮海陸商會(合資)	유통	1,500	조선	1931-12-29	경상북도
120	南鮮海産物(株)	유통	50,000	조선	1924-12-31	경상남도
121	南鮮興業社(株)	유통	15,000	조선	1935-07-24	경상남도
122	南信商會(合資)	유통	4,000	조선	1928-10-01	경기도
123	南洋商會(株)	유통	12,500	조선	1935-06-30	경상남도
124	南陽魚菜(合資)	유통	1,200	일본	1934-08-04	경상북도
125	南陽丸三魚菜市場(合資)	유통	1,200	일본	1934-08-04	함경북도
126	南一貿易(合資)	유통	10,000	조선	1929-01-25	충청남도
127	南一物産(株)	유통	75,000	조선	1920-07-22	경상남도
128	南圃水産(株)	가공	25,000	조선	1937-11-26	함경남도
129	内田萬商店(合資)	유통	20,000	일본	1931-12-30	함경북도
130	農林商會(合名)	유통	1,000	조선	1933-10-04	평안남도
131	能美漁業(株)	어로	180,000	일본	1934-11-30	함경북도
132	茶木商店(合資)	유통	2,000	일본	1930-07-01	경상남도
133	大邱漁菜(株)	유통	48,000	일본	1915-03-13	
134	大邱製氷(株)	제빙	80,000	일본	1934-02-10	경상북도
135	大邱製氷(合資)	제빙	33,000	일본	1930-04-15	경상북도
136	大東物産(合名)	유통	20,000	조선	1921-09-14	함경남도
137	大東商事(株)	가공	250,000	조선	1933-07-15	경기도
138	大東商會(合資)	유통	50,000	조선	1919-07-18	함경남도
139	大福回漕店(株)	유통	25,000	일본	1925-09-01	경상북도
140	大鮮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1-11-20	경상북도
141	大盛商會(合資)	유통	300,000	일본	1914-09-21	함경남도
142	大成海産(合資)	유통	10,000	조선	1924-04-23	경기도
143	大野商店(合名)	유통	5,000	일본	1926-05-20	경상남도
144	大野商店(合資)	제염	20,000	일본	1928-02-20	경상남도
145	大洋物産(株)	유통	75,000	조선	1938-09-30	평안남도
146	大英商店(合資)	유통	2,000	조선	1929-02-20	경상북도
147	大榮商會(合資)	유통	2,000	조선	1932-01-04	함경남도
148	大元商店(合資)	유통	1,900	조선	1928-09-30	경상북도
149	臺源商店(合資)	유통	50,000	조선	1928-01-21	경기도

150	大元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5-03-01	황해도
151	大田物産(株)	유통	30,000	일본	1931-10-28	충청남도
152	大田魚菜市場(株)	유통	30,000	일본	1931-05-04	충청남도
153	大正社(株)	유통	100,000	일본	1920-07-05	경기도
154	大津商店(合資)	유통	15,000	일본	1930-02-01	평안남도
155	大倉商店(合資)	유통	10,000	일본	1930-01-10	경상남도
156	大昌商會(合資)	유통	20,000	조선	1935-01-10	경기도
157	大塚商店(合資)	어로	2,000	일본	1928-03-20	경기도
158	大和水産(株)	가공	15,000	일본	1940-07-12	강원도
159	大興(株)	유통	25,000	조선	1925-03-20	경상남도
160	大興農民(合資)	유통	15,000	조선	1928-10-04	함경북도
161	大興物産(株)	유통	25,000	조선	1935-05-12	전라남도
162	德弘要商店(合資)	어로	10,000	일본	1933-03-03	함경북도
163	德興商店(合資)	유통	60,000	조선	1933-09-30	함경북도
164	島本商店(合資)	유통	6,000	일본	1933-05-01	경기도
165	東富商會(株)	유통	450,000	조선	1929-03-30	함경북도
166	東北商會(合資)	유통	5,000	조선	1931-06-26	함경남도
167	東鮮物産(株)	가공	75,000	조선	1937-09-15	강원도
168	東亞殖産社(合資)	유통	5,000	조선	1929-01-15	경기도
169	東洋貿易(合資)	유통	50,000	조선	1931-02-02	함경남도
170	東洋商事(株)	유통	50,000	조선	1934-09-10	평안남도
171	東洋商事(合資)	유통	8,000	조선	1933-05-25	경기도
172	東洋商會(合資)	유통	3,500	조선	1928-03-25	황해도
173	東陽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22-01-14	평안남도
174	東洋水産(株)	어로	150,000	조선	1938-02-16	함경북도
175	東洋水産新聞社(株)	기타	20,000	일본	1927-04-07	경상남도
176	東洋殖産厚生(合資)	유통	5,000	일본	1931-10-13	경기도
177	東洋捕鯨(株)	어로	3,750,000	일본	1909-05-02	일본
178	東洋興業(株)	어로	300,000	일본	1930-04-18	경상남도
179	東一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1-04-08	함경남도
180	東一水産(株)	가공	43,750	일본	1940-06-19	함경남도
181	東讚共榮組(株)	어로	45,000	일본	1932-03-23	경상남도
182	東讚漁業(株)	어로	100,000	일본	1931-04-12	일본
183	同昌社(合資)	유통	8,500	조선	1928-08-15	경기도
184	東拓水産(株)	가공	25,000	조선	1938-10-01	강원도
185	東海物産(株)	유통	16,250	조선	1938-09-29	함경남도
186	東海物産(合資)	유통	1,000	일본	1930-09-11	경상남도
187	東海社(合資)	유통	3,000	조선	1933-09-10	함경남도
188	東海産業(株)	가공	40,000	공동	1938-09-27	강원도
189	東海産業(株)	어로	97,500	일본	1941-09-08	경기도
190	東海産業(株)	유통	15,000	일본	1923-08-30	경상북도
191	東海商事(株)	물류	175,000	조선	1926-09-12	강원도
192	東海水産(株)	유통	187,500	일본	1935-10-21	함경남도
193	東海水産(合名)	유통	5,000	일본	1933-07-21	경기도
194	東海水産(合資)	어로	60,000	일본	1940-12-21	경상북도
195	東海水産工業(株)	가공	375,000	조선	1936-05-20	함경북도
196	東華商會(株)	유통	25,000	조선	1935-02-17	전라남도
197	東興商會(合名)	유통	200,000	조선	1921-01-14	경상북도
198	登美組(株)	가공	30,000	일본	1934-12-15	함경남도
199	藤山商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29-03-20	전라남도
200	藤野産業(株)	어로	300,000	일본	1936-11-27	함경북도

201	藤田(合資)	어로	10,000	일본	1928-09-20	함경남도
202	羅津産業(株)	어로	190,000	일본	1942-07-29	함경북도
203	羅津水産興業(株)	어로	112,500	공동	1938-07-31	함경북도
204	良一(合資)	유통	600	조선	1933-03-18	함경북도
205	梁川組(合資)	가공	7,000	일본	1940-07-25	함경남도
206	良浦製氷冷蔵(株)	제빙	75,000	일본	1928-01-02	경상북도
207	麗水物産(株)	유통	12,500	조선	1933-01-01	전라북도
208	麗水水産(株)	어로	6,000	일본	1914-04-30	전라남도
209	麗水水友(株)	어로	3,000	조선	1929-04-07	전라남도
210	論山鹽商(合資)	유통	10,000	조선	1931-02-05	충청남도
211	瀧森商會(合資)	유통	3,000	일본	1930-12-20	경기도
212	瀨戸商會(合資)	유통	6,000	일본	1932-01-20	함경북도
213	龍山水産(株)	유통	35,000	일본	1907-04-02	
214	柳昌商會(合資)	유통	15,000	조선	1932-01-15	경기도
215	六坵水産工業(株)	가공	75,000	조선	1939-09-15	함경남도
216	菱五商會(合資)	유통	10,000	일본	1925-11-10	평안남도
217	李東峻商店(合資)	유통	30,000	조선	1928-06-10	경기도
218	裡理魚市(合資)	유통	3,000	일본	1928-03-03	전라북도
219	裡里魚菜(株)	유통	5,000	일본	1929-12-21	전라북도
220	裡里魚菜市場(株)	유통	6,250	일본	1930-12-17	전라북도
221	林兼商店(株)	어로	7,500,000	일본	1924-09-01	일본
222	林兼漁業(株)	어로	1,500,000	일본	1924-02-15	경상남도
223	臨益養魚(株)	양식	6,600	일본	1919-12-19	전라북도
224	마루리商店(合資)	유통	120,000	조선	1938-08-10	강원도
225	마루카商店(合資)	유통	1,000	일본	1931-07-25	경상남도
226	마루타海運(株)	유통	75,000	일본	1931-03-15	
227	馬山水産(株)	유통	75,000	일본	1920-06-29	경상남도
228	馬山製氷(株)	제빙	42,000	일본	1928-08-11	경상남도
229	馬山倉庫(株)	유통	25,000	조선	1920-05-02	경상남도
230	馬山海産物(株)	유통	75,000	일본	1920-06-29	경상남도
231	滿鮮物産(合名)	유통	20,000	일본	1923-10-11	함경북도
232	網久商店(合資)	가공	4,000	일본	1933-02-27	경기도
233	孟盛漁業(株)	어로	105,000	일본	1936-01-12	경상남도
234	木浦商事(合名)	유통	10,000	일본	1931-03-01	전라남도
235	木浦製氷冷蔵(株)	제빙	75,000	일본	1929-01-15	전라남도
236	木浦海産食品(株)	가공	25,000	일본	1920-01-03	전라남도
237	武久商事(株)	유통	75,000	일본	1931-03-15	경상남도
238	墨湖水産(合資)	가공	6,000	일본	1933-08-12	강원도
239	文川養蠶(合資)	양식	15,000	일본	1921-09-03	함경남도
240	梶商店(合名)	유통	4,000	일본	1930-03-21	전라북도
241	米友商店(合資)	유통	8,000	일본	1924-01-21	경기도
242	密陽商會(合資)	유통	2,000	조선	1935-01-25	경상남도
243	朴順伯商店(合資)	유통	5,000	조선	1933-04-14	경상북도
244	朴淳哉商店(合名)	유통	45,000	조선	1929-09-10	함경남도
245	半島水産(株)	가공	95,000	공동	1940-07-29	함경남도
246	方魚津漁網船具商會(合資)	유통	30,000	일본	1923-02-11	경상남도
247	藩浦水産食品(株)	가공	30,000	공동	1939-04-10	함경북도
248	筏橋水産(株)	유통	12,500	공동	1926-08-27	전라남도
249	法聖浦物産(株)	유통	25,000	조선	1919-08-07	전라남도
250	法聖浦水産(株)	유통	5,000	공동	1919-09-05	전라남도
251	普生堂(合資)	유통	4,000	조선	1935-08-09	전라남도

252	寶水産(合名)	어로	1,000,000	일본	1925-04-28	경상북도
253	服部商店(合名)	유통	100,000	일본	1923-05-25	경상남도
254	福壽興業(株)	유통	15,000	일본	1930-08-10	경기도
255	釜山貿易(合資)	유통	13,800	일본	1927-06-06	경상남도
256	釜山貿易(合資)	유통	2,600	일본	1932-04-20	경상남도
257	釜山水産(株)	유통	350,000	일본	1907-05-29	경상남도
258	釜山水産工業(合資)	가공	8,300	일본	1937-12-15	경상남도
259	釜山水産食品(合名)	가공	11,000	일본	1931-02-20	경상남도
260	釜山食糧品(株)	유통	50,000	일본	1907-05-04	경상남도
261	釜山魚鱗精箔所(合資)	가공	2,000	일본	1933-09-14	경상남도
262	釜山鹽業(合資)	제염	28,800	일본	1925-07-27	경상남도
263	釜山製氷冷蔵(株)	제빙	200,000	일본	1935-09-15	경상남도
264	釜山丸魚(合資)	제염	54,000	일본	1920-03-09	경상남도
265	富海漁撈(株)	가공	25,000	조선	1937-02-25	함경북도
266	北尾(合資)	유통	3,000	일본	1925-03-01	경상남도
267	北鮮共同水産工業(株)	가공	180,000	일본	1939-12-25	함경북도
268	北鮮貿易社(合資)	유통	50,000	조선	1927-11-11	함경남도
269	北鮮産業(株)	어로	750,000	공동	1922-06-22	경기도
270	北鮮産業(株)	어로	57,500	일본	1935-03-01	함경북도
271	北鮮商事(合資)	유통	10,000	일본	1934-01-01	함경북도
272	北鮮水産(株)	어로	25,000	조선	1940-07-17	함경남도
273	北鮮水産(株)	유통	125,000	일본	1922-03-07	함경북도
274	北鮮水産工業(株)	가공	500,000	일본	1935-05-22	함경북도
275	北鮮漁業(株)	어로	100,000	일본	1939-04-10	함경북도
276	北鮮漁業(合資)	가공	100,000	일본	1938-08-31	함경북도
277	北鮮油脂工業(株)	가공	122,500	일본	1938-03-10	경기도
278	北鮮天然氷商會(株)	제빙	150,000	일본	1922-07-27	함경북도
279	北鮮海産(合資)	어로	30,000	일본	1927-05-01	함경북도
280	北洋水産加工(合名)	가공	10,000	일본	1940-12-10	함경북도
281	北津水産(合資)	가공	20,000	일본	1938-03-18	함경북도
282	北海道物産販賣(株)	유통	25,000	공동	1934-11-23	경상남도
283	佛國寺精米所(合資)	유통	2,000	조선	1934-10-10	경상북도
284	枇峴商事(株)	유통	5,000	조선	1928-01-10	평안북도
285	濱田鮮魚部(合名)	어로	30,000	일본	1928-07-10	경상남도
286	濱田兄弟商會(合資)	유통	1,500	일본	1928-11-15	경기도
287	四目商會(合資)	가공	800	일본	1930-05-18	강원도
288	四協商會(合資)	가공	12,000	일본	1936-06-15	경상북도
289	山國商店(合資)	유통	5,000	조선	1934-10-01	경기도
290	山崎商店(合資)	유통	16,500	일본	1934-05-15	경상북도
291	山利商店(株)	유통	150,000	일본	1928-10-01	경상남도
292	山木商店(合資)	유통	1,500	일본	1931-07-06	경상남도
293	山野商店(合資)	유통	10,000	일본	1925-09-15	경기도
294	山元運送店(合資)	유통	2,200	조선	1935-05-15	함경남도
295	三ツ和屋(合資)	유통	2,000	일본	1937-04-07	경상남도
296	三共(合資)	유통	18,000	조선	1936-09-25	경상남도
297	三共精米所(合資)	유통	7,500	조선	1934-06-16	경상남도
298	三光商會(合資)	유통	2,000	조선	1935-02-28	전라남도
299	森金商會(合資)	유통	15,000	조선	1936-04-15	경기도
300	三南(合資)	유통	1,500	조선	1934-10-30	경상남도
301	三德水産(株)	어로	50,000	조선	1938-03-08	강원도
302	杉本商店(合資)	유통	10,000	일본	1930-04-27	경기도

303	森本商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25-10-15	경상북도
304	森山(合資)	유통	5,000	일본	1930-04-10	함경남도
305	三山商會(合資)	유통	4,000	조선	1930-01-28	경상북도
306	三生(合資)	유통	4,000	일본	1932-10-19	경기도
307	三成社(合資)	어로	1,600	조선	1928-03-23	함경북도
308	三星商會(合資)	유통	15,000	일본	1922-11-01	경상남도
309	三盛水産(合名)	유통	30,000	일본	1941-03-25	함경북도
310	森野商店(合資)	어로	35,000	일본	1921-09-01	함경남도
311	森野和一郎商店(合資)	유통	25,000	일본	1923-09-01	함경북도
312	三洋商會(合資)	가공	30,000	조선	1939-09-15	강원도
313	三榮組(合資)	채조	6,000	일본	1931-12-01	경기도
314	三榮組(合資)	가공	10,000	일본	1930-07-20	경상북도
315	三榮組(合資)	어로	10,000	일본	1933-10-05	함경남도
316	三榮組水産開發(株)	어로	250,000	일본	1937-04-10	경상북도
317	三友商會(株)	유통	18,850	일본	1920-03-07	함경남도
318	三友水産物組合(合資)	가공	14,000	조선	1938-10-01	강원도
319	三由商店(合資)	유통	20,000	일본	1921-11-03	함경남도
320	三益商會(合資)	유통	6,250	조선	1925-10-29	경상북도
321	三一産業(株)	유통	50,000	조선	1920-02-29	경상남도
322	三一商會(合資)	유통	30,000	조선	1936-05-10	경상북도
323	三陟商事(株)	유통	72,500	조선	1938-01-21	강원도
324	三陟水産(株)	어로	37,500	조선	1938-10-01	강원도
325	三千浦水産(合資)	유통	53,500	일본	1907-10-	경상남도
326	三千浦漁船具(株)	유통	12,500	조선	1937-04-25	경상남도
327	三合物産商會(合資)	유통	3,500	조선	1934-12-01	함경남도
328	三和商會(合資)	유통	6,000	조선	1936-01-25	강원도
329	三和水産工業(株)	유통	82,500	일본	1940-10-07	함경북도
330	三興物産(合資)	유통	10,000	조선	1938-01-10	경기도
331	三興社(合名)	가공	4,000	일본	1937-03-10	전라남도
332	三興商會(合資)	유통	6,300	조선	1927-09-18	경상북도
333	相信社(合資)	유통	17,000	조선	1928-03-10	함경남도
334	商業運輸(株)	물류	5,000	조선	1924-06-10	경기도
335	上田商店(合資)	유통	4,800	일본	1930-08-10	경기도
336	尙州商事(株)	유통	70,000	일본	1920-05-26	
337	西岡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32-11-01	경상북도
338	西京運輸(株)	유통	12,500	조선	1934-09-26	평안남도
339	西氷(合名)	유통	50,000	조선	1929-07-25	경기도
340	西鮮水産(株)	가공	75,000	일본	1939-03-13	평안남도
341	西鮮漁業(株)	어로	37,500	일본	1922-02-10	평안남도
342	西野商店(合資)	유통	20,000	일본	1935-08-30	경상남도
343	瑞應(合名)	유통	14,100	조선	1935-03-27	전라남도
344	西中商店(合資)	제염	5,000	일본	1931-03-01	경상남도
345	西平壤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0-04-26	평안남도
346	西協商會(合資)	가공	12,000	일본	1936-06-15	경상북도
347	西湖産業(株)	가공	25,000	조선	1937-11-10	함경남도
348	西湖水産(株)	유통	25,000	조선	1929-04-20	함경남도
349	西湖水産(合名)	유통	4,000	조선	1926-11-25	함경남도
350	西湖水産(合資)	유통	30,000	조선	1939-08-26	함경남도
351	爽光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1-01-05	경상북도
352	石河商店(合資)	유통	2,500	일본	1931-06-06	함경북도
353	鮮南漁業(株)	유통	150,000	일본	1922-06-01	전라남도

354	鮮洋漁業(株)	어로	30,000	일본	1932-06-10	함경남도
355	善榮商事(株)	어로	97,500	일본	1940-08-15	경상남도
356	鮮友組(合資)	유통	8,700	일본	1930-11-10	경상남도
357	善翼商會(株)	유통	100,000	조선	1937-03-15	경기도
358	鮮一商會(合資)	유통	50,000	조선	1927-10-09	경기도
359	鮮一商會(合資)	가공	30,000	조선	1938-06-18	함경북도
360	鮮海漁業(株)	어로	80,000	일본	1927-02-28	경상북도
361	鮮海組(株)	어로	80,000	일본	1934-03-18	경상북도
362	城津水産(株)	어로	22,500	일본	1941-02-05	함경북도
363	城津水産工業(株)	어로	25,000	공동	1936-06-27	함경남도
364	城津漁糧(株)	가공	25,000	조선	1936-06-09	함경북도
365	城津興産(株)	어로	15,000	조선	1938-06-26	함경북도
366	成川酒造(株)	유통	37,500	일본	1928-12-24	평안남도
367	篠崎米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27-11-13	경기도
368	小栗商店(合名)	유통	6,000	일본	1931-01-24	경상북도
369	小田商店(合資)	유통	7,000	일본	1932-11-01	경상남도
370	昭和商會(合資)	유통	5,000	일본	1930-11-01	평안남도
371	昭和水産(合資)	어로	190,000	공동	1937-12-15	함경북도
372	昭和水産工業(株)	가공	250,000	일본	1937-06-10	경기도
373	孫元浩商店(合資)	어로	10,000	조선	1930-10-01	함경북도
374	松本商店(合資)	유통	2,000	일본	1927-12-06	경상남도
375	松中(合名)	유통	30,000	일본	1921-06-28	경기도
376	松下商店(合名)	가공	50,000	일본	1924-08-17	함경북도
377	守谷商店(合名)	가공	100,000	일본	1927-10-16	경상남도
378	守谷水産商事(株)	어로	200,000	일본	1934-08-20	경상남도
379	水産興業(合資)	유통	50,000	조선	1933-07-15	경기도
380	輸出食品(株)	가공	7,800,000	일본	1912-05-05	일본
381	升繁商店漁業部(合資)	어로	4,500	일본	1932-08-22	경상남도
382	桝本商會(合資)	유통	3,000	일본	1932-06-01	경상남도
383	植米商店(合名)	가공	11,200	일본	1930-11-21	경상남도
384	殖産(合資)	유통	4,500	조선	1928-11-10	강원도
385	殖産(合資)	유통	23,500	조선	1924-09-28	함경남도
386	植田船具店(合資)	유통	10,000	일본	1933-07-07	전라북도
387	新開商店(合資)	유통	2,000	일본	1930-09-18	경상남도
388	新京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34-04-08	함경북도
389	神崎漁業(合資)	어로	200,000	일본	1935-02-01	경상남도
390	信洞興業(株)	유통	25,000	조선	1935-12-01	전라남도
391	辛良極商店(合名)	유통	50,000	조선	1926-06-09	함경북도
392	新幕官鹽營業(株)	유통	5,000	조선	1930-11-09	황해도
393	新義州水産市場(株)	유통	20,000	일본	1918-11-09	평안북도
394	信正商事(株)	유통	10,000	조선	1935-01-30	경상남도
395	信昌製鹽所(合資)	가공	1,000	조선	1932-03-30	평안남도
396	新昌興亞産業(株)	어로	150,000	조선	1940-05-25	
397	新川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21-08-29	전라남도
398	新浦魚糧(株)	어로	150,000	일본	1934-05-26	함경남도
399	新浦精米所(合資)	유통	20,000	조선	1937-12-07	경상북도
400	新興官鹽販賣組合(合資)	유통	5,000	조선	1933-02-19	함경남도
401	新興商會(合資)	유통	4,450	조선	1930-01-07	함경남도
402	新興商會(合資)	어로	10,000	조선	1938-06-15	함경북도
403	新興漁業(株)	어로	100,000	일본	1935-11-07	함경북도
404	安城商事(株)	유통	75,000	조선	1919-12-27	경기도

405	安城商會(株)	유통	37,000	조선	1936-01-05	경기도
406	安承泰商店(合資)	유통	13,000	조선	1932-06-23	함경북도
407	安村商店(合資)	유통	60,000	일본	1931-11-09	경상남도
408	安村賢商店(合資)	어로	30,000	일본	1926-07-03	함경북도
409	岩佐商店(合資)	물류	5,000	일본	1928-12-24	경상남도
410	岩村精鹽所(株)	제염	16,000	일본	1930-11-28	평안남도
411	야마상三共運送部(合資)	물류	4,100	조선	1934-01-18	평안남도
412	야마이商店(合資)	유통	30,000	일본	1925-08-01	함경남도
413	漁大津水産工業(株)	어로	500,000	일본	1940-07-23	함경북도
414	魚商組(株)	가공	20,000	공동	1938-07-10	함경남도
415	鹽本商店(合資)	유통	9,000	일본	1929-03-30	전라남도
416	鹽商(合名)	유통	10,000	조선	1930-05-20	충청남도
417	燁興商店(合資)	유통	5,000	조선	1928-02-20	함경북도
418	永敏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7-12-17	경상북도
419	永盛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5-08-25	평안북도
420	永新商會(合名)	유통	4,000	조선	1926-02-18	경상북도
421	永信商會(合資)	유통	2,000	조선	1930-05-23	경상북도
422	永新商會(合資)	유통	4,000	조선	1926-02-18	경상북도
423	迎日灣漁業(株)	어로	900,000	일본	1937-08-24	경상북도
424	永昌(合資)	유통	3,000	조선	1935-10-01	전라남도
425	永昌社(合資)	유통	9,000	조선	1932-08-15	전라북도
426	永和商業(株)	유통	37,500	조선	1922-09-23	경상북도
427	永興(合資)	유통	900	조선	1930-10-01	경상북도
428	五菱水産(合資)	가공	15,000	조선	1938-09-20	강원도
429	烏山水産(株)	어로	12,500	조선	1936-03-04	경상북도
430	奧村商店(合資)	어로	40,000	일본	1932-03-04	전라남도
431	奧村食品(株)	가공	25,000	일본	1937-12-25	경상북도
432	莞島金融(株)	유통	37,500	일본	1930-02-15	전라남도
433	莞島水産(株)	유통	2,500	일본	1921-03-11	전라남도
434	莞島海陸物産(株)	유통	25,000	공동	1920-04-15	전라남도
435	完天(合資)	유통	100,000	조선	1912-02-24	전라북도
436	倭館金融倉庫(株)	유통	70,000	조선	1920-08-25	
437	友益社(合資)	유통	10,000	조선	1927-01-26	경기도
438	宇田罐詰所(合資)	가공	10,000	일본	1936-10-15	함경남도
439	旭商店(合資)	유통	8,000	일본	1937-05-31	경상남도
440	旭水産(株)	어로	375,000	일본	1929-06-01	일본
441	旭水産(株)	어로	100,000	일본	1938-05-13	전라북도
442	旭水産加工(合資)	어로	20,000	일본	1939-09-13	함경북도
443	旭魚市場(株)	유통	75,000	일본	1921-03-15	전라남도
444	鬱島物産(有限)	가공	80,000	일본	1941-10-14	경상북도
445	蔚山商事(株)	유통	50,000	조선	1936-05-13	경상남도
446	蔚珍産業(株)	어로	17,500	조선	1937-02-17	경상북도
447	蔚珍商事(株)	물류	14,000	일본	1924-01-09	경상북도
448	蔚珍水産(株)	어로	8,750	공동	1935-10-20	경상북도
449	蔚珍運輸(株)	물류	28,000	공동	1935-06-30	경상북도
450	雄基産業(株)	가공	180,000	일본	1939-12-24	함경북도
451	雄基水産(株)	어로	100,000	일본	1938-08-08	함경북도
452	雄基魚菜(株)	유통	12,500	일본	1933-09-20	함경북도
453	雄基魚菜(合資)	유통	10,000	일본	1932-11-28	함경북도
454	雄基興業(株)	유통	125,000	일본	1933-06-17	함경북도
455	元山冷蔵(株)	물류	12,500	일본	1932-08-18	함경남도

456	元山商店(合名)	유통	3,000	조선	1927-12-19	함경남도
457	元山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3-04-27	경상북도
458	元山水産(株)	유통	95,000	일본	1922-09-03	함경남도
459	原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28-11-30	함경남도
460	原田船具店(合資)	유통	10,000	일본	1937-11-15	경상남도
461	有吉商店(合資)	유통	10,000	일본	1927-04-18	경상남도
462	裕昌商會(合名)	가공	10,000	조선	1937-09-24	함경북도
463	尹德煥商店(合資)	유통	15,000	조선	1936-12-11	경상북도
464	殷盛商會(合資)	유통	13,000	조선	1935-03-03	평안남도
465	宜春信託(株)	유통	50,000	조선	1920-03-24	경상남도
466	義興商店(合資)	유통	2,000	조선	1930-06-11	함경남도
467	二和商會(合資)	유통	2,500	일본	1930-10-01	함경남도
468	仁光商會(合資)	유통	3,500	조선	1932-09-24	경기도
469	仁一商會(株)	유통	12,000	조선	1928-03-25	경기도
470	仁川物産(株)	유통	75,000	공동	1927-02-11	경기도
471	仁川産業(合名)	유통	8,000	조선	1938-01-25	경기도
472	仁川商業(株)	유통	25,000	조선	1936-12-25	경기도
473	仁川水産(株)	유통	26,250	일본	1907-12-	경기도
474	日本水産(株)	유통	2,500,000	일본	1920-08-23	일본
475	日本水産(株)	어로	75,000,000	일본	1925-11-01	일본
476	日本殖産(株)	양식	700,000	일본	1914-05-30	일본
477	日本漁網防腐(合名)	가공	5,000	일본	1936-03-15	경기도
478	日本捕鯨(株)	어로	2,000,000	일본	1934-05-07	일본
479	日本海産興業(株)	가공	40,000	일본	1922-02-04	경상남도
480	日本海魚菜(株)	유통	12,500	공동	1934-07-08	함경북도
481	一三商會(株)	유통	30,750	조선	1922-07-23	전라북도
482	日新商店(合資)	유통	3,500	조선	1924-02-08	경상북도
483	一二商店(合資)	유통	2,000	조선	1931-08-12	경상북도
484	日州商會(合資)	가공	20,000	일본	1919-02-06	함경남도
485	日出水産(有限)	가공	80,000	공동	1941-08-18	함경북도
486	入澤商會(合資)	어로	3,000	일본	1934-06-24	경상남도
487	長谷商店(合名)	유통	25,000	공동	1936-10-10	충청북도
488	張孟鶴商店(株)	유통	5,000	조선	1937-01-30	경상북도
489	長箭水産化工(株)	가공	41,250	조선	1940-09-21	강원도
490	長箭魚糧(株)	가공	150,000	일본	1935-05-08	강원도
491	長井商店(合名)	가공	200,000	일본	1933-08-15	함경북도
492	長項水産(株)	가공	25,000	일본	1939-11-18	충청남도
493	長湖院殖産(株)	유통	45,000	조선	1931-07-24	경기도
494	齋藤物産商事(合資)	유통	5,000	일본	1936-05-20	경상남도
495	赤乾物號(合資)	유통	4,500	일본	1923-04-10	경기도
496	赤坂商店(合資)	유통	25,000	일본	1933-04-10	경상남도
497	全南商工(株)	가공	37,500	조선	1937-08-08	전라남도
498	全南水産(株)	유통	15,000	일본	1924-03-15	전라남도
499	全南水産工業(株)	가공	50,000	조선	1936-11-25	전라남도
500	全南漁業(株)	유통	180,000	일본	1941-05-30	전라남도
501	全南漁業(合資)	어로	14,700	공동	1931-11-30	전라남도
502	全南運輸倉庫(株)	유통	25,000	일본	1920-05-21	전라남도
503	全南製氷(株)	제빙	75,000	일본	1927-12-14	전라남도
504	全北水産(株)	가공	75,000	일본	1921-05-22	전라북도
505	全北水産(株)	유통	25,000	일본	1940-01-10	전라북도
506	田上商會(合資)	유통	2,000	일본	1932-11-01	강원도

507	全州魚菜(株)	유통	8,750	일본	1931-07-28	전라북도
508	田中商店(合資)	유통	8,000	일본	1926-10-01	경상남도
509	鄭李倉農商會(合名)	유통	80,000	조선	1926-04-06	경상남도
510	井川工業(株)	어로	250,000	일본	1936-01-20	함경북도
511	井川商店(合資)	유통	30,000	일본	1922-11-01	함경북도
512	帝國殖産(合資)	유통	4,000	조선	1930-06-25	경기도
513	第一産業(株)	유통	25,000	조선	1920-05-02	경상남도
514	第一水産(株)	어로	12,500	일본	1942-04-14	경기도
515	第一水産(株)	유통	75,000	일본	1941-11-19	함경남도
516	濟州島漁業(株)	어로	300,000	일본	1936-11-10	전라남도
517	濟州島海藻(株)	유통	20,000	조선	1938-08-31	전라남도
518	鳥居商店(株)	물류	25,000	일본	1936-09-25	경상남도
519	鳥居商店(合名)	유통	90,000	일본	1925-09-01	일본
520	朝鮮官鹽販賣(株)	유통	250,000	조선	1921-09-21	경기도
521	朝鮮罐詰(株)	가공	150,000	일본	1931-08-24	함경남도
522	朝鮮良浦製氷(合資)	제빙	100,000	일본	1926-06-28	경상북도
523	朝鮮物産商會(株)	유통	25,000	일본	1919-04-15	경상북도
524	朝鮮米穀(株)	유통	25,000	공동	1927-11-21	경상북도
525	朝鮮産業(株)	어로	750,000	조선	1922-11-12	경기도
526	朝鮮産業通運(株)	유통	25,000	조선	1937-12-13	경상남도
527	朝鮮水産(株)	가공	100,000	공동	1936-10-30	경기도
528	朝鮮水産加工(株)	가공	12,500	일본	1931-12-01	경기도
529	朝鮮水産開發(株)	어로	1,000,000	일본	1938-07-17	경기도
530	朝鮮水産工業(株)	가공	100,000	일본	1936-08-13	함경남도
531	朝鮮水産物販賣(株)	가공	25,000	일본	1931-06-18	경상남도
532	朝鮮水産輸出(株)	가공	400,000	일본	1918-08-15	경상남도
533	朝鮮水産新聞社(株)	기타	20,000	일본	1927-04-07	경상남도
534	朝鮮水産資源(株)	어로	47,500	조선	1940-05-20	함경남도
535	朝鮮水産化工(株)	가공	500,000	일본	1938-09-20	함경북도
536	朝鮮食品釜山工場(有限)	가공	72,800	일본	1940-11-13	경상남도
537	朝鮮新興産業(株)	어로	25,000	일본	1940-05-28	경상북도
538	朝鮮實業(合資)	유통	23,500	조선	1926-09-10	경기도
539	朝鮮養魚(合資)	양식	5,000	일본	1922-12-28	경상북도
540	朝鮮魚糧(株)	가공	500,000	일본	1937-04-09	경기도
541	朝鮮漁業(合資)	어로	100,000	일본	1930-12-14	경기도
542	朝鮮鹽業(株)	제염	125,000	일본	1927-03-19	경기도
543	朝鮮運輸倉庫(株)	유통	125,000	일본	1921-06-05	충청북도
544	朝鮮日水(株)	유통	175,000	일본	1938-04-10	경상남도
545	朝鮮潛水器漁業(株)	어로	213,750	일본	1923-04-24	경상남도
546	朝鮮赤貝養殖(株)	양식	10,000	공동	1938-08-23	경상북도
547	朝鮮製綱(株)	가공	90,000	일본	1922-08-01	경상남도
548	朝鮮製氷(株)	제빙	520,000	일본	1936-05-18	경기도
549	朝鮮第四區潛水器漁業(株)	어로	52,500	일본	1932-07-12	경기도
550	朝鮮第三區潛水器漁業(株)	어로	120,000	일본	1931-09-15	전라남도
551	朝鮮第一區潛水器漁業(株)	어로	140,000	일본	1931-05-24	함경남도
552	朝鮮振興開發(株)	어로	1,000,000	공동	1927-04-11	일본
553	朝鮮天然氷(株)	제빙	150,000	일본	1921-11-15	경기도
554	朝鮮海陸物産(株)	유통	10,000	일본	1924-09-13	경상남도
555	朝鮮海藻(株)	채조	62,500	공동	1920-04-10	
556	朝鮮海苔加工販賣(株)	가공	180,000	일본	1940-12-19	경상남도
557	朝鮮協同水産(株)	유통	450,000	일본	1938-06-28	경상남도

558	朝鮮協同油脂(株)	가공	5,000,000	일본	1937-05-29	경기도
559	朝鮮化學油肥工業所(合資)	가공	40,000	조선	1936-04-26	함경남도
560	朝日商會(合資)	유통	7,500	조선	1925-08-02	함경남도
561	朝日漁業(株)	어로	129,600	일본	1938-06-25	강원도
562	朝窪水産工業(株)	가공	500,000	일본	1937-07-20	함경북도
563	鐘淵朝鮮水産(株)	가공	3,000,000	일본	1939-04-10	함경북도
564	宗澤商店(合資)	유통	25,000	일본	1928-12-15	함경북도
565	共榮社(株)	유통	50,000	조선	1924-09-07	충청북도
566	東一商會(株)	유통	200,000	조선	1924-03-09	함경북도
567	靑松興業社(株)	유통	25,000	조선	1926-05-16	경상북도
568	酒浦水産(合名)	유통	10,000	일본	1928-02-20	전라남도
569	竹謠商會(合資)	유통	3,000	일본	1931-05-20	함경북도
570	茁浦水産(株)	유통	12,500	일본	1922-03-24	전라북도
571	中見商店(合名)	유통	20,000	일본	1931-06-22	경상남도
572	中島商店(合資)	유통	2,000	일본	1925-01-10	경상북도
573	中島洋行(合資)	유통	5,000	일본	1923-11-01	경기도
574	中上商店(合名)	유통	24,000	일본	1930-05-03	경상남도
575	中西船具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34-06-04	전라남도
576	中央物産(株)	유통	225,000	공동	1922-04-17	경기도
577	中央運輸(合資)	유통	5,000	일본	1937-04-10	충청북도
578	中外貿易(合資)	유통	20,000	조선	1929-08-15	경기도
579	中益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33-06-30	경상남도
580	中村商店(合資)	유통	6,000	일본	1935-12-11	황해도
581	中興柴炭商店(合資)	유통	4,000	조선	1933-01-10	경기도
582	增田潛水漁業(合資)	어로	13,200	일본	1927-12-23	경기도
583	池尻商店(合資)	유통	70,000	일본	1924-02-01	함경남도
584	池田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28-12-14	함경북도
585	鎭南浦果物興業(株)	유통	50,000	조선	1927-02-24	평안남도
586	鎭南浦水産(株)	양식	25,000	일본	1909-07-15	평안남도
587	鎭南浦製氷所(合資)	제빙	36,000	일본	1933-04-02	평안남도
588	珍島商事(株)	유통	5,000	공동	1929-02-03	전라남도
589	珍島殖産(株)	어로	212,500	일본	1918-04-30	일본
590	進永商事(株)	유통	5,000	조선	1935-02-22	경상남도
591	晋州魚菜(株)	유통	20,000	공동	1935-07-13	경상남도
592	鎭海灣漁業(株)	어로	240,000	공동	1937-08-12	경상남도
593	鎭海水産(株)	유통	60,000	일본	1919-03-01	경상남도
594	珍鴻開拓(合名)	유통	15,000	조선	1935-03-27	전라남도
595	振興商會(合資)	유통	5,000	조선	1936-04-15	전라북도
596	遮湖産業(株)	어로	25,000	조선	1938-08-27	함경남도
597	遮湖漁糧(株)	어로	45,000	공동	1936-08-26	함경남도
598	昌南鹽業(合名)	유통	4,200	일본	1921-12-10	경상남도
599	川崎商店(合資)	유통	4,000	일본	1928-08-01	경상북도
600	川本商店(合資)	어로	10,000	일본	1933-11-27	함경북도
601	天安魚菜市場(株)	유통	3,750	일본	1923-10-01	충청남도
602	泉屋商店(合資)	유통	4,000	일본	1931-09-07	황해도
603	川昌(合資)	유통	10,000	조선	1931-07-28	경상남도
604	靑南(株)	유통	125,000	조선	1919-11-04	함경남도
605	靑島洋行(株)	제염	230,000	일본	1919-02-17	일본
606	靑松興業社(株)	유통	25,000	조선	1926-05-16	경상북도
607	淸津冷凍(株)	가공	50,000	일본	1936-07-24	함경북도
608	淸津水産(株)	어로	250,000	일본	1936-12-30	함경북도

609	清津魚糧工業(株)	가공	1,000,000	일본	1935-01-13	함경북도
610	靑海商店(合資)	유통	15,000	조선	1940-07-25	함경북도
611	村谷商店(合資)	유통	12,000	일본	1925-06-15	함경남도
612	村田商店(合資)	가공	6,000	일본	1930-06-29	함경북도
613	村井商店(合名)	가공	2,000	일본	1926-04-25	함경북도
614	崔祥彦商店(合資)	유통	4,500	조선	1935-05-10	경상남도
615	秋田水産工業(株)	어로	750,000	일본	1936-03-25	함경북도
616	春陽物産(株)	유통	12,500	조선	1934-10-05	경상북도
617	忠南勸業(株)	유통	25,000	조선	1922-09-15	충청남도
618	忠南勸業(株)	유통	37,500	조선	1930-03-31	충청남도
619	忠南商事(株)	유통	15,000	공동	1929-03-29	충청남도
620	忠南水産(株)	유통	25,000	일본	1919-08-05	충청남도
621	忠南興業(株)	어로	25,000	일본	1920-12-	
622	忠北農商(合資)	유통	5,700	조선	1935-11-15	충청북도
623	카네生商店(合資)	유통	2,500	일본	1932-01-12	경상남도
624	키漁場(合資)	어로	3,000	조선	1934-01-15	전라남도
625	灘光商店(合資)	유통	7,000	일본	1929-06-28	경상남도
626	泰成商會(合名)	유통	20,000	조선	1935-03-10	함경북도
627	泰盛商會(合資)	유통	11,980	조선	1922-05-21	함경북도
628	泰成號(合資)	유통	2,500	조선	1936-03-01	충청남도
629	泰昌商會(合資)	어로	80,000	조선	1934-07-18	강원도
630	澤屋商會(合資)	유통	2,000	일본	1925-11-03	함경남도
631	統營罐詰(株)	가공	15,000	일본	1920-12-01	경상남도
632	統營撚糸(合名)	가공	15,000	일본	1935-04-29	경상남도
633	統營物産(株)	유통	50,000	공동	1928-01-31	경상남도
634	統營肥料(株)	가공	10,000	일본	1921-02-22	경상남도
635	統營漁撈(株)	어로	45,000	일본	1920-04-25	경상남도
636	統營漁業(株)	어로	25,000	일본	1942-05-26	경상남도
637	統營精米所(株)	유통	25,000	일본	1920-12-15	경상남도
638	統營製鋼(株)	유통	12,500	일본	1913-08-04	경상남도
639	統營海産(株)	유통	180,000	일본	1921-04-01	경상남도
640	投野商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29-05-13	경상남도
641	巴商會(合資)	유통	3,000	일본	1929-12-20	전라남도
642	板倉商店(合資)	제업	5,000	일본	1927-09-07	경기도
643	平北山海興業(株)	가공	40,000	일본	1942-07-24	평안북도
644	平勝商店(合資)	유통	2,000	일본	1933-10-20	경상남도
645	平安商業(株)	유통	125,000	조선	1920-08-01	평안북도
646	平安漁業(株)	어로	125,000	일본	1926-09-16	평안북도
647	平野商店(合資)	어로	5,000	일본	1931-06-10	전라남도
648	平壤林商會(合資)	유통	25,000	조선	1921-04-28	평안남도
649	平壤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28-11-10	충청북도
650	平壤食糧品市場(株)	유통	12,500	일본	1921-05-15	평안남도
651	平壤食料品(株)	유통	45,000	공동	1938-10-30	평안남도
652	平壤魚市場(株)	유통	112,500	일본	1911-07-01	
653	平壤靑果(株)	유통	125,000	일본	1937-09-28	평안남도
654	平日商會(合資)	유통	1,000	조선	1938-01-06	평안남도
655	平海興業(株)	유통	20,000	조선	1937-11-20	경상북도
656	平戶水産相互(株)	가공	150,000	일본	1922-10-10	일본
657	布谷今城兄弟商會(合名)	유통	30,000	일본	1925-04-06	경상남도
658	布谷商店(合資)	유통	10,000	일본	1927-04-14	경상남도
659	豊國水産(株)	어로	180,000	일본	1939-03-31	함경북도

660	豊山穀物(株)	유통	12,500	조선	1935-10-30	경상북도
661	豊田榮藏商店(合資)	유통	3,000	일본	1923-02-11	경상남도
662	豊海水産(株)	유통	50,000	조선	1937-01-15	함경북도
663	下釜商店(合名)	유통	20,000	일본	1933-09-18	경상남도
664	下釜商店(合資)	유통	30,000	일본	1931-03-05	함경남도
665	下垣商店(合名)	유통	6,000	일본	1933-04-15	경상남도
666	河井商店(合資)	유통	1,500	일본	1930-04-19	함경북도
667	鶴賀商事(合資)	유통	20,000	조선	1937-07-07	경상남도
668	漢江汽船(株)	유통	25,000	공동	1930-08-31	경기도
669	韓成運輸(株)	유통	25,000	조선	1927-11-15	함경북도
670	韓成運輸(合名)	유통	10,000	공동	1927-02-01	함경북도
671	韓興商店(合資)	유통	5,000	조선	1928-02-20	함경북도
672	咸慶水産工業(株)	가공	45,000	공동	1940-06-08	경상북도
673	咸南水産(株)	어로	49,750	조선	1940-06-11	함경남도
674	咸南水産工業所(株)	가공	12,000	일본	1937-12-15	함경남도
675	咸南鹽魚製造(株)	가공	50,000	일본	1937-04-15	함경남도
676	咸南製氷(株)	제빙	25,000	일본	1931-10-15	함경남도
677	咸南倉庫(株)	어로	200,000	조선	1935-05-14	함경남도
678	咸北商會(合資)	유통	1,600	조선	1931-06-16	함경북도
679	咸北水産加工(株)	가공	97,500	일본	1941-12-01	함경북도
680	咸北輸出鹽魚水産(株)	가공	50,000	일본	1936-09-18	함경북도
681	咸北魚糧(合名)	가공	195,000	일본	1939-07-15	함경북도
682	咸北漁業(合名)	가공	10,000	조선	1924-01-27	함경북도
683	咸海漁業(株)	어로	70,000	일본	1937-03-22	함경북도
684	咸興物産(株)	유통	25,000	일본	1929-12-20	함경남도
685	咸興商業倉庫(株)	유통	100,000	조선	1936-11-28	함경남도
686	咸興市場(株)	유통	25,000	공동	1932-03-31	함경남도
687	咸興魚菜(株)	유통	7,500	일본	1932-05-10	함경남도
688	南鮮興業社(合資)	유통	15,000	조선	1935-07-24	경상남도
689	大一商會(合資)	물류	20,000	조선	1938-06-02	함경북도
690	海運公司(合資)	물류	30,000	조선	1938-11-11	평안북도
691	丸中中興公司運送部(合資)	물류	30,000		1939-10-15	함경북도
692	海南共同運輸(株)	물류	38,000	일본	1920-11-15	
693	海南興産(株)	유통	26,250	조선	1927-02-18	전라남도
694	海東物産(株)	유통	25,000	조선	1936-11-01	강원도
695	海東商事(合資)	유통	12,000	조선	1932-08-27	경기도
696	海東商會(合名)	가공	30,000	조선	1929-04-17	함경북도
697	海東水産(株)	가공	3,125	조선	1937-02-03	경상북도
698	海東水産(合資)	가공	14,070	조선	1938-10-01	강원도
699	海東興産(株)	유통	75,000	조선	1930-05-02	전라남도
700	海陸物産社(合資)	유통	4,000	조선	1933-12-01	황해도
701	海陸社(合資)	유통	15,000	조선	1930-02-02	경기도
702	海陸商事(合資)	유통	40,000	조선	1925-08-02	경기도
703	海陸油肥(合名)	가공	5,000	일본	1929-02-01	경기도
704	海鮮運送(株)	유통	25,000	조선	1921-12-24	전라남도
705	海盛(合資)	유통	50,000	조선	1926-03-17	경상북도
706	海運公司(合資)	유통	30,000	조선	1938-11-11	평안북도
707	海一漁業商事(合資)	가공	100,000	조선	1939-07-01	함경북도
708	協同商會(合資)	유통	42,000	조선	1937-11-28	함경북도
709	協同運輸(株)	유통	15,000	조선	1938-10-25	전라남도
710	協益商會(合資)	유통	2,000	일본	1933-11-20	경기도

711	湖南産業(株)	유통	75,000	조선	1937-06-06	전라북도
712	湖南商會(合資)	유통	3,000	조선	1935-09-10	전라북도
713	湖南天然水(合資)	제빙	15,000	일본	1930-11-20	전라북도
714	湖西興業(合資)	유통	15,000	조선	1929-06-10	충청남도
715	互信商會(株)	유통	25,000	조선	1936-01-02	경상남도
716	湖一興業(合名)	유통	10,000	조선	1932-12-05	충청남도
717	丸一組(合資)	어로	2,500	조선	1936-01-12	경상남도
718	丸吉運送(株)	물류	6,250	조선	1937-11-25	함경남도
719	丸博商會(合資)	유통	2,500	일본	1934-05-10	황해도
720	丸山商店(合資)	유통	500	조선	1937-05-01	전라북도
721	丸山商會(合資)	어로	5,000	일본	1930-05-10	경상남도
722	丸三商會(合資)	유통	15,000	일본	1925-10-05	함경남도
723	丸三漁業(株)	어로	60,000	일본	1930-05-01	경상북도
724	丸三精米所(合資)	유통	20,000	조선	1936-01-10	경상북도
725	丸星組(合資)	어로	25,000	일본	1937-03-01	경상북도
726	丸源商店(合資)	양식	10,000	일본	1928-12-01	함경남도
727	丸二商會(株)	유통	50,000	일본	1931-12-15	함경남도
728	丸二商會(合資)	어로	1,800	일본	1931-04-15	강원도
729	丸二水産(株)	어로	50,000	일본	1939-04-11	경상북도
730	丸二晋州荷主運送(株)	유통	15,000	조선	1935-10-05	경상남도
731	丸一商店(合資)	유통	3,500	일본	1931-10-15	경기도
732	丸全委託運送(株)	유통	10,000	조선	1937-11-26	충청남도
733	丸政商會(合資)	가공	5,000	일본	1930-11-23	함경남도
734	丸中商會(合資)	제염	40,000	일본	1936-07-01	함경남도
735	丸八水産(株)	가공	8,100	조선	1937-02-25	경상북도
736	丸平水産工業(株)	가공	100,000	일본	1932-05-15	경상남도
737	丸平토마토사단(株)	가공	50,000	일본	1932-05-15	경상남도
738	丸玄商會(合資)	유통	10,000	조선	1930-04-15	함경남도
739	荒木商店(合資)	유통	5,000	일본	1928-11-06	경상남도
740	黃海水産(株)	어로	90,000	일본	1940-12-07	황해도
741	黃海水産(合資)	어로	20,000	공동	1925-01-25	황해도
742	橫濱物産(合資)	유통	3,800	일본	1932-08-19	경상남도
743	橫山(合資)	양식	48,500	일본	1936-12-31	함경남도
744	橫山商店(株)	양식	75,000	일본	1922-09-26	함경남도
745	橫山商店(合資)	양식	101,000	일본	1921-03-15	함경남도
746	黒田商店(合資)	가공	4,000	일본	1930-10-08	경상북도
747	興南商事倉庫(株)	유통	48,750	조선	1939-10-31	함경남도
748	興南商會(合資)	유통	20,000	일본	1927-11-11	경기도
749	興南漁業(合資)	어로	80,000	조선	1939-04-30	함경남도
750	興南魚菜市場(株)	유통	12,500	일본	1936-11-20	함경남도
751	興産貿易社(株)	유통	50,000	조선	1934-12-11	황해도
752	興新商會(合資)	유통	1,000	조선	1929-01-05	경기도
753	興亞水産(株)	어로	37,500	일본	1941-02-14	경기도
754	興洋水産(株)	유통	200,000	일본	1926-08-20	전라남도
755	興和水産工業(合資)	가공	50,000	일본	1940-08-15	함경북도
756	姫野商店(合資)	유통	6,000	일본	1924-05-31	경기도
757	姫野再製鹽(合資)	제염	4,000	일본	1932-04-23	함경북도